

기본과제연구2003-

# 충청남도 성곽문화재의 보존관리방안연구

문화재연구부 이 훈

# 목 차

<b>제1장 머리말</b> .....	<b>1</b>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6
<b>제2장 충청남도 성곽문화재 관리현황</b> .....	<b>14</b>
제1절 성곽문화재 조사현황 .....	14
제2절 성곽문화재 지정현황 .....	38
제3절 성곽문화재 보수정비 사업현황 .....	40
제4절 성곽관리의 문제점 .....	45
<b>제3장 성곽문화재 관리의 개선·활용방안</b> .....	<b>67</b>
제1절 관리 개선방안 .....	67
제2절 개발·활용방안.....	73
<b>제4장 맺음말 - 결론 및 정책제언</b> .....	<b>86</b>
제1절 보수 정비사업을 위한 제언 .....	87
제2절 활용을 위한 제언 .....	90

## — 부 록 —

### ◆ 참고문헌

# 충청남도 성곽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제 1 장 머 리 말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수 많은 산성과 읍성이 삼국시대 이래로 축조되어 있다. 2001년 현재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344건에 이른다.

성곽은 국방이나 교통의 요지에 설치했던 군사 시설물로 축성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반영되어 있어 우리 나라 역사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조상들의 호국의지와 조국애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최근 각 시·군마다 대표적인 산성을 정비·복원하여 역사 교육의 장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곽이 충분한 고증과 체계적인 계획 없이 정비·복원됨으로써 성곽의 원형 왜곡은 물론이고, 부실한 공사로 인해 오히려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성곽의 정비·복원 및 보수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정비·복원 후의 관리 미숙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성곽의 원형을 보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비·복원은 당시의 삶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의 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자칫 과거에 만들어진 유적, 그 자체로 남을 수 있는 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문

화유산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정비요, 복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재의 정비·복원과 그것을 통한 다양한 활용은 문화재가 단순히 과거의 그 자리를 지키는 죽은 유적이 아닌 현재의 삶을 다채롭게 꾸며줄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 된다. 문화재와 관련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 연구목적

사회상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비·복원을 통해 교육의 場, 체험의 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곽유적이 충청남도에도 다수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축성된 것이므로 각각의 축조기법, 역사적 의미, 기능, 성격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각의 산성들을 특성화 시켜 정비·복원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도내에 분포하는 성곽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5개 시·군에 얼마만한 성곽이 어떠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각각의 다양한 정비·복원안과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각 시군에 분포하는 성곽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각 시군별 성곽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성곽도 문화재인 이상 다른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나 지방지정문화재(기념물,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것도 있고, 지정되지 않은 유적도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정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지정문화재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세 번째는 충남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문화재가 궁극적으로는 찾는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비·복원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정비·복원은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왜곡

없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곽이 정비·복원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고증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는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과 관련된 예산문제다.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에 고증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해당 성곽을 어떻게 정비·복원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정비·복원과 관련된 예산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는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 및 예산의 효율성을 피하기 위한 개선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에 정확한 고증작업이 결여되어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의 집행에 비효율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되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섯 번째로는 성곽문화재와 관련된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도내 15개 시군에 분포하는 성곽을 다양한 기준으로 검토하여 활용도가 높은 성곽을 선별해 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여기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활용방안 몇 가지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도내에 분포하는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 개선안을 마련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인 만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목표에 다가가 볼까 한다.

먼저,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성곽문화재는 역사적

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다. 성곽의 출현 배경, 변천과정, 축조 목적, 기능별 유형, 그리고 성곽문화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대시설 등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성곽에 대한 정확한 정비·복원과 활용방안은 성곽이 갖는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만큼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성곽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크게 보아 도성(왕성)과 산성, 읍성 등이 있다. 본 연구가 정비·복원 및 활용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산성이나 읍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도성(왕성)은 위치나 성격, 구조 등이 산성이나 읍성과 전혀 다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산성과 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특히 그 시기별 특징이나 기능별 특징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시기별로 성벽을 축조하는 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벽 복원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이점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이러한 시기적 특징을 무시한 정비·복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복원이 아닌 왜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능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곽 기능별로 부대시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부대시설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대시설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곽의 정비·복원시에는 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그 래야 정비·복원의 우선 순위나 반드시 해야 할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구별해서 정비·복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점 또한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 실태는 修理보고서나, 기타 관련 도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정비·복원된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지표조사나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곽의 특징과 정비·복원된 사항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당

연히 잘못 정비·복원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원인도 현장에서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비·복원의 문제는 단순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정비·복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비·복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성곽문화재의 바람직한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재 문화재 관리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성곽문화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성곽의 정비·복원 후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정비·복원 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수·수리보고서 발간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배포하는 방법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곽문화재에 투입되는 정비·복원 예산을 검토하고자 한다. 예산안의 타당성이나 각 항목별 타당도 검토가 방법일 것이다. 특히 일정한 계획하에 성곽의 정비·복원이 추진되는 경우가 아니면 중복투자나 우선 순위를 무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이 부분에 주의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로 성곽문화재의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각 시군별로 활용도가 높은 성곽을 2~3개 정도 선정하여 각각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내에 분포하는 모든 성곽을 전부 정비·복원하여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몇몇 성곽만을 대상으로 활용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당연히 시군별 2~3개의 성곽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정된 성곽들은 정비·복원 자체가 목적인 것도 있고, 기타 관광자원화, 휴식 공간, 산교육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성곽과 관련된 행사 및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활용 방안이자 해당 성곽문화재를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곽문화재가 갖는 역사성 및 문화재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1. 성곽의 정의

우리 나라에서의 성곽의 기원은 사마천의 『史記』에 보이는 王儉城에서 찾을 수 있다. 즉, 漢의 武帝가 古朝鮮을 공격자 이에 대항하여 고조선 사람들은 왕검성에서 1년 가까이 저항하게 된다. “右渠는 험하고 견고한 것만 믿다가 나라의 대가 끊어지게 했다”고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한민족 특유의 산성 방어를 통해 끝까지 침입자에게 대항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三國志』에 이르면 좀 더 분명하게 성곽의 존재가 찾아지는데, 夫餘條에는 “城柵은 둥글게 만들어서 마치 감옥과 같다”는 기록이 있고, 고구려조에는 “이 성을 幘溝淩라 부른다. 구루란 고구려 사람들이 城을 부르는 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삼한 중 진한조와 변진조에는 “城郭(柵)이 있다”고 하여, 성곽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마한에 대해서도 “성곽은 없다”고 하였지만 곧바로 뒷부분에 “國中에 무슨 일이 있거나, 官家에서 성곽을 쌓을 때에는…”이라 하여 성곽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 이남지역에서도 삼한시대부터는 성곽이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곽은 방어시설이다. 성곽이 갖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방어시설이란 사실이다. 이러한 방어시설으로써의 성곽은 청동기시대의 환호나 목책이 그 기원이 된다.<sup>2)</sup> 환

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고고학사전』, 2001, pp.579~582.

2) 권오영, 「방어취락의 발전과 토성의 출현」, 『강좌 한국고대사』 7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pp.61~101.

호나 목책 등 초기에는 간단한 시설로 출현하였지만 점점 방어력이 요구되면서 마침내 삼한시대에는 토성이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늦어도 삼한시대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던 성곽은 삼국,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교통의 요지, 혹은 방어에 필요한 지역에 축성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지금까지 문헌기록이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진 성곽의 수는 약 2000여 기에 달하며, 미조사된 것까지 합친다면 아마도 3000여 기가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 우리 나라를 예로부터 ‘성곽의 나라’라고 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성곽은 입지조건, 형태, 축조재료에 따라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입지조건에 따라서는 산을 중심으로 구축된 山城과 평지에 구축된 邑城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성은 삼한시대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만 읍성은 고려말부터 축조하기 시작하여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까지도 각 지방도시는 읍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나라의 성곽문화재를 대표하는 것은 역시 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산성은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리적 요충지에 축조하는 시설물이다. 이러한 산성은 험산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평지에 자리한 성곽과 달리 축성 비용과 노동력이 비교적 적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방어 효과는 우수한 것이 보통이다. 우리 나라의 성곽이 대부분 산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의 산성은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단순히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요새로서의 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행정통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지방을 통치하는 행정의 중심이 邑城으로 내려오기 이전까지는 산성이 중심이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읍성이 축조되면서 산성이 갖는 이러한 성격은 상당부분 읍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산성은 이제 방어의 중심지로서써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산성의 규모가 커지고, 높은 험산에 자리

---

3)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지』 제8집, 2001.

하게 되는 것이 그 때문이다.

산성은 주로 입지조건과 성벽의 통과선이 구체적으로 택하는 지형에 따라 山頂式(테피식)과 包谷式의 두 가지 계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또한, 그 축조재료에 따라 석축산성과 토축산성, 토석혼축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축조 재료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석재를 얻기가 쉬운 곳에서는 석성이 축조되지만 석재를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토성이 축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석성의 경우 성곽이 축조된 시기에 따라 성곽을 축조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석성을 복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성곽은 성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내의 시설물과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성벽의 복원만으로 성곽복원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뿐만아니라 고대 산성의 경우, 성곽이 곧 생활의 무대였기 때문에 주변에 무덤이나 사찰터, 주거지, 窯址 등이 함께 공존하는 수가 많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유적들을 산성과 함께 정비·복원해야만 당시의 생활모습이 비로소 재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산성을 개발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여타 다른 유적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때 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산성은 최근들어 등산, 운동 등 시민들의 여가활동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히 산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산성을 정비·복원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성유적은 대개 산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개발에서 훼손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대체로 전쟁 중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급경사나 험난한 고지대에 위치하는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붕괴와 멸실이 뒤따르고 있다. 게다가 후대에 도로건설, 제방축

조 등으로 석재의 반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성벽의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제시대에는 의병운동의 중심지가 된다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파괴되기도 하였다. 이런 저런 이유로 원형이 보존된 성곽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극히 일부의 성벽만 남아 있다.

읍성은 고려말에 倭寇의 침입이 빈번해 지면서 새롭게 출현하게 되었다.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내륙으로 옮겨살면서 空地化 되자 버려진 해안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邑城을 축조하기 이르렀던 것이다. 읍성을 축조하여 흩어진 연안 주민들을 다시 불러모으고, 왜구의 침입이 있더라도 沿海에서 우선 방어하기 위해 읍성의 축조가 이루어졌다.<sup>4)</sup> 행정적기능과 방어적 성격을 동시에 띠 수 밖에 없었다. 읍성이 현재에도 해당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읍성은 개발이 진행되는 소도읍이나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훼손이 더욱 심각하다. 성벽의 통과선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2. 연구 현황

성곽이나 봉수등에 대한 자료는 조선시대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해동지도」 등의 각종 地理誌와 古地圖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성곽과 봉수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가 그것이다.

그 후 국내자료로는 197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文化遺蹟總覽』을 간행하면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성곽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 역사지리적으로 성곽의 연대에 접근하든가, 단편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史書에 보이는 성곽의 위치비정 작업이 시도되는 정도였다.

---

4) 沈正輔, 『韓國 邑城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5, p.62.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곽 연구는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개발과 더불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夢村土城, 公山城, 益山 五金山城 등이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1988년에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주관으로 성곽에 대한 국제 학술회의가 개최된 것만 보아도 이 시기에 들어 성곽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이 두어졌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sup>5)</sup>

성곽에 대한 열의는 여기 저기 산포하는 성곽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이어져 마침내 충청도내에 분포하는 성곽의 위치와 현황을 대부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6)</sup> 충남지역은 성곽 연구의 한복판에 자리잡았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도내에 분포하는 성곽의 위치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충남이 유일하다. 그 만큼 충남지역은 성곽의 정비·복원 및 개발·활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동안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산성에 대한 연구, 읍성에 대한 연구, 도성에 대한 연구이고 성곽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해당 유적의 현황 및 구조, 축조방법, 출토유물 그리고 유적의 성격과 의의 등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보수·수리보고서의 경우는 성곽의 보수·수리에 대한 결과 보고치고는 대단히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수리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과정이나 방법이 생략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다행인 것은, 산성의 경우 개별 성곽의 축조방법, 특징, 사료에 등장하는 특정 성곽과의 관련성 등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읍성에 대한 연구는 읍성별 축조 시기와 동기, 과정, 축조방법, 읍성내 시설물의 구조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곽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축

---

5) 그 내용은 『백제연구』 19,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8로 정리·간행되었다.

6) 忠淸南道, 『文化遺蹟總覽』(城郭·官衙 篇), 1991.

성법에 대한 것이다. 성벽 복원의 잘잘못을 검토해 보고 개선안을 제사하는 자리인 만큼 성곽 자체가 갖는 의미나 다양한 기능 보다는 축조기법 및 관련 부대시설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축성법에 대한 연구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국시대 석성의 경우 크게 보아 축성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판석형 성돌로 축성하는 방법과 활석형 성돌로 축성하는 방법, 그리고 다듬은 성돌을 이용하여 축성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판석형 성돌을 사용하여 성벽을 축성한 예는 삼년산성<sup>8)</sup>과 충주산성,<sup>9)</sup> 온달산성,<sup>10)</sup> 赤城,<sup>11)</sup> 계족산성<sup>12)</sup>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두가 신라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산성 이라는 점에서 신라산성의 특징적인 축성법으로 풀이된다.<sup>13)</sup>

다듬은 성돌로 성벽을 축조한 예는 백제 故地와 신라 故地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두 지역에 남아 있는 성벽을 보면 성돌을 治石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백제 故地에 남아 있는 성돌을 보면 청마산성,<sup>14)</sup> 성흥산성,<sup>15)</sup> 보문산성,<sup>16)</sup> 부여 나성,<sup>17)</sup> 망이산성의 외성벽<sup>18)</sup> 등지에서 보듯이 성돌의 가로 : 세로가 3 : 2 정도

7) 閔德植, 「三國時代 築城法에 관한 몇 가지 試考」, 『白山學報』 38, 1991, pp.23~42.

8)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三年山城』, 2002.

9) 忠州工大 博物館, 『忠州山城綜合地表調查報告書』, 1984.

10) 車勇杰·朴泰祐, 『溫達山城』, 忠北大學校 博物館, 1987.

11) 車勇杰·趙詳紀, 『赤城』,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0.

12) 沈正輔·孔錫龜, 『鷄足山城』, 大田産業大 郷土文化研究所, 1992.

13) 徐程錫, 『百濟의 城郭』, 學研文化社, 2002, p.234.

14)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3輯(扶餘郡 篇), 1988.

15) 安承周·徐程錫, 『聖興山城門址發掘調查報告書』, 忠南發展研究院, 1996.

16) 李康承 外, 『寶文山城發掘調查報告書』, 大田市, 1994.

17) 朴淳發 外, 『百濟泗泚羅城(Ⅲ)』, 忠南大 百濟研究所, 2002.

18) 단국대학교 박물관, 『망이산성발굴보고서(1)』, 1996.

되도록 다듬은 성돌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단양 赤城,<sup>19)</sup> 양주 대모산성,<sup>20)</sup> 충주 대림산성<sup>21)</sup> 등 신라 고지에서 발견되는 석성들은 가로 : 세로가 3 : 1 정도 되는 세장방형 형태로 治石한 성돌을 사용하여 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橫塼石으로 성돌을 다듬어 축성한 것은 신라(계)성곽의 특징으로 생각된다.<sup>22)</sup>

한편, 조선시대에 축조된 읍성의 경우, 축성법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성돌은 외면만을 다듬은 자연할석을 사용하고, 성벽의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갈수록 점점 작은 성돌을 사용하여 역학적인 안정감을 꾀하고 있다.<sup>23)</sup> 조선시대 성벽이 이렇게 자연 할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돌 사이에는 틈새가 생긴다. 따라서 성돌 사이의 틈새를 작은돌로 췌기돌처럼 채워 넣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축성 시기에 따라 성돌의 治石 방법과 축조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벽의 복원에 앞서 해당 성벽이 언제 축조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곽의 축성법에서 또 한가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성돌 面石을 治石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이렇게 治石한 성돌을 실제로 쌓아올리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성돌을 쌓아 올리는 방법에는 크게 보아 직선형 쌓기와 곡선형쌓기가 있는데,<sup>24)</sup> 신라(계)산성에서는 주로 직선형쌓기 방식이 채택된데 비해 백제(계)산성은 곡선형쌓기를 하고 있다.<sup>25)</sup>

성벽의 기초시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벽 최하단의 城基부분에는 성

---

19) 車勇杰·趙詳紀, 앞의 보고서,

20) 文化財研究所·翰林大博物館, 『楊州大母山城發掘調查報告書』, 1990.

21) 상명대박물관, 『충주대림산성』, 1989.

22) 徐程錫, 앞의 책, 2002, p.236

23) 孫永植, 『韓國 城郭의 研究』, 文化財管理局, 1987, p.77

24) 孫永植, 앞의 책, 1987, pp.176~187.

25) 徐程錫, 앞의 책, 2002, p.242

벽이 오랫동안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성벽의 바깥쪽에 보축시설을 덧대는 것이다. 이렇게 보축시설이 확인된 성곽은 明活山城에서 보듯이 신라(계)산성 뿐이다. 신라(계)산성의 특징이라고 보아도 될 듯 하다.

반면에 백제(계)산성은 이렇게 보축시설을 한 예가 분명하지 않다. 그 대신 백제(계)산성은 성흥산성에서 알 수 있듯이 생토면을 ‘ㄴ’자 형식으로 파고, 그 턱에 의지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sup>26)</sup> 생토면을 굴착하고 성벽을 축조함으로써 성벽이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충남지역에 자리하는 성곽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충남지역의 일정지역, 즉 시·군 단위별로 분포하는 산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성곽 하나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며, 또는 충남지역은 백제의 도읍지가 있었던 곳인 만큼 이러한 도읍지를 대상으로 도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27)</sup>

그런데 이러한 연구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시·군마다 분포하는 15개 소 내외의 성곽 중에서 특징적인 한 개의 성곽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특정 성곽이야말로 삼국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의 그 지역 중심 治所였던 성곽이기 때문이다.<sup>28)</sup> 이러한 성곽들은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 모두에 분포하는 만큼 앞으로 성곽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성곽들은 대체로 역사적 의미도 크고, 현재도 주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성곽 중의 하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

26) 안승주·서정석, 앞의 보고서, 1996.

27) 서정석, 「대전·충남지역 관방연구의 현단계」, 『학예지』 8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1, p. 58.

28) 成周鐸, 「百濟 新村縣 位置比定에 대한 研究」, 『百濟論叢』 1輯,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pp.87~117.

## 제 2 장 충청남도 성곽문화재 관리 현황

### 제1절 성곽문화재 조사현황

#### 1. 분포현황

그 동안 조사된 바에 의하면 남한지역 전역에 분포하는 성곽의 수는 1,9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9)</sup> 그러나 최근 『문화유적분포지도』 등 정밀한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성곽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에 분포한 성곽중 행정구역별로 보면 경남 318개소에 이어 충남지역에는 314개소가 분포하고, 다음으로 경북지역에 250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표 1> 시도별 성곽분포현황(광주는 전남에 포함, 봉수는 제외)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수	26	28	25	107	24	32	230	90	127	314	167	178	250	318	12	1,920

경남지역에 많은 성곽이 분포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에 왜구방비를 위해 沿岸에 집중적으로 읍성을 축조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충남지역에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성곽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충남 도내에 분포하는 성곽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안지역은 충남도의 가장 북단에 자리하고 있는데 26개소의 산성이 분포되어 있다. 최근 목천토성을 비롯하여 사산성, 위례산성, 백석동

29)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지』 8집, 2002.

토성 등이 발굴조사되어 성곽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sup>30)</sup> 이들 성곽은 모두 백제나 통일신라시대의 성곽으로 확인되어 고대의 성곽축조방법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목천토성은 전체를 판축기법으로 축조한 平山城인데, 축조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라 하더라도 백제토성의 축성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백제토성을 복원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平山城의 경우, 백제시대의 성곽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에 목천토성이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앞으로 平山城의 축조 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산성은 백제시대의 복합식산성으로 주목받았던 것인데,<sup>31)</sup> 지금은 오히려 부소산성의 예와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성벽을 축조할 때 사용한 永定柱孔의 간격이 3m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인데,<sup>32)</sup> 출토유물도 한결같이 통일신라시대의 것들만 출토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축조 시기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백석동토성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위에 축조된 토성인데, 제 3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성곽은 표고 122m의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永定柱孔의 간격이 1.2m 내외로 비교적 좁은 편이다. 또한, 성벽이 축조되는 곳에 ‘ㄴ’자 형태의 턱을 만든 다음, 그 턱에 의지해서 土壘를 축조하고 있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러한 축성법은 부소산성의 성벽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흥산성을 비롯한 백제산성의 성벽에서 확인되고 있어 백제 성곽의 특징적인 축성법

30) ①尹武炳, 『木川土城發掘調查報告書』, 忠南大學校 博物館, 1984.

②成周鐸車勇杰, 『稷山 蛇山城』,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4.

③任孝宰 外, 『天安 慰禮山城』,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7.

④李南奭, 「天安 白石洞土城의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28, 1998, pp.75~93.

31) 尹武炳成周鐸, 「百濟山城의 新類型」, 『百濟研究』 8, 忠南大百濟研究所, 1997, pp.12~13.

32) 崔孟植, 「百濟 版築工法에 관한 研究」,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96, p.545.

<표 2> 천안시 소재 산성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광덕산성		동면 광덕리,행암	백제
2	국사봉산성		동면 죽계리,장송리,충북진천군 봉죽리 경계	미상
3	대정리 산성		성남면 대정리	미상
4	도원리 산성		동면 화계리, 병천면 도원리	백제
5	동성산성		병천면 도원리	백제
6	두남리(구룡리)산성		풍세면 두남리,남관리,구룡동	백제
7	망경산성		수신면 백자리	미상
8	목천(남화리)토성		목천면 남화리	백제
9	백석동토성	도기 106	백석동 일대	백제
10	봉서산성		백석동	미상
11	사산성	도기 104	직산면 군동리	백제
12	서림산성		동면 수남리	백제 조선
13	성거산성	문자 263	성거읍 천흥리	백제
14	세성산성	도기 105	성남면 화성리	백제
15	왕자산성		유량동, 목천면 덕전리 경계	고려
16	용와산성		직산면 마정리	미상
17	월봉산성		불당동	백제
18	위례산성	도기 148	북면 운용리 산61	백제 통신
19	일봉산성		용곡동	백제
20	작성산성		병천면 매성리	미상
21	청당동(삼룡동)산성		청당동	백제 고려
22	청룡산성		광덕면 매당리	미상
23	하장토성		동면 장송리	백제
24	화계리(도원리)산성		동면 화계리	백제
25	환희산성		동면 죽계리,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미상
26	혹성산성	문자 364	목천면 남화리	백제추정

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성벽의 복원시 역시 참고해야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주시는 충남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백제 웅진시대의 도읍지였던 곳이다. 비록 도읍지로 있었던 시기는 64년간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도성 방비체제와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소산성이 현재도 잘 남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성곽의 수는 공산성을 비롯하여 모두 24개소에 달한다.

공주지역을 대표하는 성곽은 역시 공산성이다. 1980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백제시대 추정왕궁지를 비롯한 많은 건물지와 연못, 기타 성곽과 관련된 부대시설들이 확인되었다.<sup>33)</sup> 동문지 주변의 성벽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성벽이 토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백제 성곽 이해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공산성 이외의 성곽 중에는 의당면 수촌리에서 조사된 수촌리토성을 들 수 있다.<sup>34)</sup> 원래 이 토성은 고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조사된 것인데, 극히 일부가 조사된 것에 불과하지만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벽이 통과할 基底部에 작은 할석을 놓고 판축을 시작한 점이나 능선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雉城이 자리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성벽 복원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주지역의 성곽 조사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주지역의 대부분의 성곽들이 백제시대 수도방비를 위해 축조된 것으로 믿어지는 만큼 앞으로 조사가 좀 더 활성화 되어 정확한 백제산성의 특징도 확인하고, 아울러 정비·복원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회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백제의 古都였던 공주지역이 누리는 일종의 특혜다. 그런 점에서 공주지

33) ①安承周, 『公山城』,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82.

②安承周·李南奭, 『公山城推定王宮址發掘調查報告書』, 公州大學校 博物館, 1987.

③安承周·李南奭, 『公山城城址發掘調查報告書』,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0.

④安承周·李南奭, 『公山城 建物址』,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2.

⑤李南奭·李 勳, 『公山城池塘發掘調查報告書』,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5.

34) 國立公州博物館, 『水村里土城(1)』, 2001.

<표 3> 공주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경천리 양화산성		계룡면 경천리 성밑	삼국
2	공산성	사적 12	금성동, 산성동	백제 조선
3	광정리 산성		정안면 광정리	삼국
4	단지리 산성		우성면 단지리	삼국
5	만수리 산성		이인면 만수리	미상
6	무성산성		우성면 한천리, 사곡면 대중리	미상
7	봉곡산성		번포면 봉곡리 국사봉	미상
8	상룡리 산성		정안면 상룡리	백제
9	상성		계룡면 상성리	백제
10	송곡산성		반포면 송곡리 성재	
11	송정리 산성		의당면 송정리, 장기면 송문리	삼국
12	수촌리 토성		의당면 수촌리 456-8	원삼국
13	신평산성		신평면 산정리	삼국
14	오인리 산성		의당면 오인리, 우성면 반촌리	삼국
15	옥녀봉성	도기 99	옥룡동 산2-1	삼국
16	옥성리 산성		우성면 옥성리 성머리	삼국
17	용성리 산성		이인면 용성리 1구 누에머리	삼국
18	웅진동 한산성		웅진동 한산	미상
19	울정리 산성		의당면 울정리	삼국
20	은용리 산성1		장기면 은용리	삼국
21	은용리 산성2		장기면 은용리 3구	미상
22	이인산성		이인면 목동리	삼국
23	중장리 산성		계룡면 중장리 3구	삼국
24	평기리 산성		장기면 평기리	미상

역의 성곽 조사가 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보령시지역은 충남의 서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성곽은 모두 23개소가 확인되었다. 보령에는 오천의 수영성이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성곽의 규모, 구조 등이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남포읍성도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성은 아직 지표조사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鎭唐山城의 현황이 알려지고, 성격에 대

<표 4> 보령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고남산성(봉당고성)		주포면 봉당리(고남동) 산62	삼국
2	남포읍성	도기 10	남포면 읍내리	고려-조선
3	달산리 산성		남포면 달산리	미상
4	대천리 산성1		웅천읍 대천리	삼국
5	대천리 산성2		웅천읍 대천리, 수부리 두룡리 경계	고려
6	보령 읍성	문자 146	주포면 보령리	조선
7	보령리		주포면 보령리 구성재	삼국-고려
8	삼곡리 산성		주산면 삼곡리	삼국
9	성동리 산성		웅천읍 성동리, 대창리	고려
10	성연리 오서산성		청소면 성연리 성동 산32	미상
11	소송리 내송 토성		남포면 소송리 내송	삼국
12	수부리 산성		웅천읍 수부리	미상
13	연지리 아현산성		주포면 연지리	삼국
14	오천수영성(충청수영, 고마수영)	도기 9	오천면 소성리 931	조선
15	용수리 양각산성		미산면 용수리	삼국
16	장산리 진당산성		청라면 장산리.주포면 보령리	삼국-조선
17	제석리 대봉산성		남포면 제석리	삼국
18	죽청리 목장성		웅천읍 죽청리-구룡리 사이	고려
19	창암리 토성		주산면 창암리, 삼곡리	삼국
20	향천리 산성		청라면 향천리	고려
21	황교리 구마량진성		웅천읍 황교리 구진	조선
22	황교리 목장성		웅천읍 황교리	고려
23	황률리 토성		주산면 황률리	삼국

한 추론도 제시되었다.<sup>35)</sup>

그런가 하면 백제 신촌현의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당산성과 봉당

35) 俞元載, 「保寧 鎭唐山城에 대한 研究」, 『公州教大論集』 21, 1985.

산성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기도 하였다.<sup>36)</sup>

최근들어 보령지역에서는 백제시대의 횡혈식 석실분이 조사되면서<sup>37)</sup> 백제시대 보령지역의 위상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보령지역의 산성에 대한 조사도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산시는 충남의 북부지역에 위치하는데 15개소의 산성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성곽 중 발굴조사된 유적은 하나도 없으나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학성산성과 영인산성이 있다.<sup>38)</sup>

학성산성은 백제시대 산성일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는데, 최근에 성벽의 일부가 복원되었다. 영인산성은 몽고침입시 지역민들이 入城하여 籠城하였다는 平澤城으로 비정되고 있는데,<sup>39)</sup> 그런 점에서 지표조사 후 발굴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아산지역은 백제시대에 湯井城으로 불렸던 곳인데, 읍내동산성 일대가 당시의 湯井城으로 비정되고 있다.<sup>40)</sup> 만일 이러한 추론이 인정될 수 있다면 탕정성으로 비정되는 읍내동산성은 당연히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읍내동산성에 대한 이렇다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산지역은 충남의 서북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읍성 2개소를 비롯하여

36) 成周鐸, 「百濟 新村縣 治所의 位置比定에 關한 研究」, 『百濟論叢』 1,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37)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成周鐸車勇杰, 『保寧 保寧里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② 李南奭李勳, 『보령 명천동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5.

③ 李弘鐘 外, 『蓮芝里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2002.

38) 忠南發展研究院, 『牙山 鶴城山城』, 1999.

영인산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未刊이다.

39) 尹龍嫻, 「高麗 대몽항쟁기 지방민의 避亂 立保 사례」, 『百濟文化』 22,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2, pp.169~182.

40) 兪元載, 「百濟 湯井城 研究」, 『百濟論叢』 3,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2.

<표 5> 아산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군덕리산성		선장면 군덕리 2구 다실기 마을	미상
2	금성리 산성		인주면 금성리 구룡말	미상
3	기산동 산성		온양시 기산동	미상
4	피곶성		음봉면 송촌리	미상
5	무명산성		음봉면 신수리, 염치면 동정리	미상
6	물양성(수한산성)		음봉면 송촌리 물너목 마을	미상
7	배방산성(복부성)	도기 67	배방면 신흥리 감택마을	미상
8	백암리산성		염치면 백암리	미상
9	성내리산성		영인면 성내리	미상
10	성안말 산성		온양시 읍내동 3구 성안말	조선
11	세교리산성		배방면 세교리	미상
12	영인산성		영인면 아산리	미상
13	읍내리 산성		온양시 읍내동	미상
14	화성산성	문자 244	신창면 읍내리	미상
15	호산리 산성		탕정면 호산리 성뒤마을	미상

모두 18개소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개 유적에 대한 조사는 별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서산지역의 성곽 중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역시 해미읍성이다. 해미읍성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 구조와 규모가 정확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성내에 있던 각종 다양한 건물지가 조사되어 정비·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읍성내에서 정기적으로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물지에 대한 정비·복원이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산지역의 산성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富城山城은 백제시대의 성곽으로 대중교류의 관문역할을 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sup>41)</sup> 만약 이러한

<표 6> 서산지역 산성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고파도리성		팔봉면 고파도리	조선
2	공림산성		석남동(예천동) 산 23-9	미상
3	동암산성		운산면 가좌리, 갈산리	미상
4	반양리산성		해미면 반양리(성재산)	삼국
5	부성산성		지곡면 산성리 1구 산 66-2	삼국
6	북주산성		부춘동 산1-1, 동문동 산38-1	삼국
7	상흥리 산성		음암면 상흥리 상노치	미상
8	서산읍성		부춘동	조선
9	신송리산성		고북면 신송리(봉화산)	삼국
10	연암산성		고북면 장요리·초록리, 해미면 대곡리	미상
11	웅소성리산성		해미면 웅소성리	미상
12	원평리대성		운산면 원평리	미상
13	울목리산성		음암면 울목리, 성현면 명천리	미상
14	전라산성		운산면 안호리(전라산)	미상
15	토성산성		인지면 둔당리	미상
16	해미읍성	사적 116	해미면 읍내리 1구 16-87	조선
17	호리성		팔봉면 호리 3구 산42-1	조선
18	화수리산성		인지면 화수리 1구 산26, 성리 2구 산144	미상

추론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면 당연히 사적으로 지정·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성산성에 대한 정밀조사와 발굴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 밖에 연암산성은 餘村縣의 治所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42)</sup> 이러한 지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연암산성에 대한 조사 불가피해 보인다.

논산시는 충남의 동남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성곽은 모두 18개소가 확인

41) 李南奭, 「瑞山 富城山城에 대한 考察」, 『古文化』 60, 1989.

42) 金英心, 「忠南地域의 百濟 城郭 研究」, 『百濟研究』 30, 忠南大 百濟研究所, p.83.

<표 7> 논산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곰티 산성		별곡면 검천리 2구	미상
2	노성산성	사적 393	노성면 송당리 산1	백제
3	달이산성		별곡면 수락리 산27	미상
4	매화산성(마야산성)		논산리 연무읍 양지리	미상
5	반야산성		지산동 · 관촉동	미상
6	불암산성		성동면 개척리	미상
7	산직리 산성		양촌면 산직리(장골)	미상
8	신흥리 산성		양촌면 신흥리	백제
9	양화산성		상월면 석종면	미상
10	옥녀봉 산성		강경읍 북옥리	미상
11	외성리 산성	문자 277	부적면 외성리	미상
12	월성리 산성		성동면 월성리	미상
13	채운산성		강경읍 채산리 산14-1	미상
14	천왕산성		연산면 청동리	미상
15	청동리 산성		연산면 청동리	미상
16	황령산성		별곡면 한삼천리, 연산면 신암리	백제
17	황산성	도기 56	연산면 관동리	백제
18	황화산성	도기 92	논산읍 등화동 산1	백제

되었다. 논산지역에서는 노성산성이 지표조사와 일부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그 규모가 확인되었다.<sup>43)</sup> 그러나 그 이외에는 이렇다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황산벌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하였지만<sup>44)</sup> 개개 산성에 대한 정밀 조사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논산지역의 산성은 백제 멸망과 관련된 황산벌전투와 연계되어 학계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몇몇 후조지에 대한 조사라도 최소한 이루어져야 할

43) 李南奭·徐程錫, 『魯城山城』,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5.

44) 忠南大 百濟研究所, 『黃山벌戰蹟地』, 2001.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에 논산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는 백제군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황산벌전투와 관련된 유적지의 발굴이 시급한 현안과제라 하겠다.

금산지역은 충남의 동부에 자리하고 있는데 성곽은 모두 20개소가 확인되었다. 금산군에서는 성곽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거의 없었으나 최근에 들어 백령성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구조 및 규모가 확인되고 있다.<sup>45)</sup> 그 결과 백제시대에 축성된 성곽으로 확인되어 추가 발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금산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백제와 신라와의 경계지역으로 생각되는 만큼 이 지역 성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백제와 신라의 경계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백제산성과 신라산성이 공조하여 좋은 비교자료를 제공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관내에 분포하는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기지역은 충남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16개소의 산성이 확인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운주산성이 정밀지표조사를 비롯하여 문지 및 건물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sup>46)</sup>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백제 주류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막상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초축 시기가 통일신라시대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는 백제 토기편이 추가로 발견되어 앞으로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특히 금이성과 이성산성, 읍내리토성, 당산성 등은 입지와 규모, 축성법 등에서 각각 특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밀조사를 통해 축성 시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축성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정확한 시기만 밝혀진다면 앞으로 성벽 복원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45) 충남발전연구원, 「백령성시굴조사개략보고서」, 2003.

46) ①李南奭·徐程錫, 『雲住山城』,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6.

②公州大學校 博物館, 『燕岐 雲住山城』, 1998.

③忠南發展研究院, 『燕岐 雲住山城 試掘調査報告書』, 2000.

④忠南發展研究院, 「燕岐 雲住山城 城壁 發掘調査略報告書」, 2002.

<표 8> 금산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계원봉보루		금성면 마수리	백제
2	계진리산성		금산읍 계진리	백제~고려
3	곡남리산성		복수면 곡남리	백제
4	금산읍성		금산읍 상리, 중도리	고려
5	금성산성		금성면 마수리	백제~고려
6	대암리산성		금성면 대암리	고려
7	동정성			
8	마전리산성		추부면 마전. 추정. 용지리 경계	백제
9	만악리산성		진산면 만악리	백제
10	백령성	도기 83	남이면 건천리, 역평리 산 16	백제
11	수당리산성		제원면 수당리	
12	용문산성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백제
13	자지성		제원면 천내리	백제
14	지춘산성			
15	진산성		진산면 읍내리	백제
16	천내리산성		제원면 천내리	백제~조선
17	철마산보루		추부면 자모리	백제
18	평촌리산성		부리면 평촌리	
19	핏재산성		금성면 마수리 핏재	삼국
20	학망산성			

부여군은 백제 사비시대의 도읍지였던 만큼 많은 수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만 30개소에 이른다. 그중 백제시대의 도성이었던 羅城과 扶蘇山城, 그리고 聖興山城이 발굴조사되어 규모 및 구조, 축성법이 확인되었다.

부소산성은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백제시대에 초축된 후, 통일신라,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기에 걸쳐 축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sup>47)</sup> 특히 동문지 주변에서 출토된 “大通”銘 와편의 존재는 부소산

47) ①尹武炳, 「扶蘇山城 城壁調査」, 『韓國考古學報』 13, 1982.

②崔孟植 外, 『扶蘇山城 發掘調査 中間報告』,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5.

③國立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Ⅱ)』, 1996.

<표 9> 연기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 치	시대
1	고려산성		전의면 고동리	통일-고려
2	금이성	도기 78	전동면 달전리 ·전의면 송성리	고려
3	기와말 토성재		서면 와촌리 기와말	미상
4	나성산성		남면 나성리	미상
5	당산성		남면 연기리-보통리 1구	백제-고려
6	송성		전의면 달전리	미상
7	용포리 성채		금남면 용포리	미상
8	운주산성	도기 79	전동면 청송리	백제-고려
9	원사산성		남면 진의리	미상
10	읍내리산성		전의면 읍내리	백제(?)
11	이성산성	도기 77	전동면 신방리	백제
12	작성산성		전의면 송성리	미상
13	증산성		전의면 서정리 83	미상
14	진의리 산성		남면 진의리	백제
15	하소골 성채		전동면 보덕리 하소골	미상
16	황우산성		동면 합강리, 명학리	미상

성의 축조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성흥산성은 동문지와 남문지 주변에 대한 제한된 발굴조사에 그쳤지만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이 확인되었다.<sup>48)</sup> 성벽에 잇대어서 백제기와층이 발견됨으로써 현재의 성벽이 백제시대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성흥산성이 자리한 곳이 백제 加林郡지역이란 점에서 성흥산성은 바로 그 加林城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축조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성흥산성이 백제산성이 분명하다면 앞으로 조사와 성벽 복원시 편년과 축성법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④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 整備에 따른 緊急發掘調査』, 1999.

⑤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發掘中間報告書(Ⅲ)』, 1999.

⑥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Ⅳ)』, 2000.

⑦朴淳發 外, 『百濟泗泚羅城(Ⅲ)』,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2.

⑧朴淳發 外, 『泗泚都城』,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3.

48) 安承周·徐程錫, 『聖興山城 門址發掘調査報告書』, 忠南發展研究院, 1996.

성곽문화재는 아니지만 부소산 南麓에 대한 조사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82년에 첫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년 연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곽이 아니면서도 이 지역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곳이 오래 전부터 사비시대 백제 왕궁터로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sup>49)</sup>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石槽와 蓮池를 찾아낸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부여 주변에는 사적지로 지정되고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곽이 많이 있다. 청마산성과 청산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청마산성은 백제시대 최대의 포곡식산성으로 王都 곁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다. 그런데도 지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규모나 축성법, 성내 시설물 현황, 수습유물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백제성곽 연구를 위해서도,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해서도, 그리고 백제역사촌 건립을 위해서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속한 시일내에 최소한의 조사라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증산성과 석성산성 역시 마찬가지다. 증산성과 석성산성은 왕도의 서쪽과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 남쪽을 담당한 성흥산성과 함께 사비도성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유적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축성 시기는 물론이고, 성내 시설물의 분포 양상을 확인하여 축성 목적이나 기능을 밝히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서천군은 충남의 서남단에 자리하고 있는데 성곽은 모두 31개소가 확인되었다. 이 지역에는 서천읍성, 한산읍성, 비인읍성 등 읍성 3개소와 장암진성, 마량진성 등 2개소의 鎭城이 위치하고 있다. 바다를 끼고 있고, 호남지역과 경기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인 데다가 금강의 하구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왜구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침공 장소가 되도록 하였던

---

49) ①尹武炳, 『扶餘 官北里 百濟遺蹟 發掘報告(I)』, 忠南大學校 博物館, 1986.

②尹武炳, 『扶餘 官北里 百濟遺蹟 發掘報告(II)』, 忠南大學校 博物館, 1999.

<표 10> 부여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구봉산성(독산성)		구룡면 구봉리	원삼국-백제
2	금성산성		부여읍 동남리, 가담리, 쌍북리	백제
3	나성	사적 58	부여읍 일원	백제
4	남촌리 산성		홍산면 남촌리	고려
5	논치산성		구룡면 논치리	원삼국-백제
6	누르개재산성		양화면 초왕리	미상
7	대흥산성		임천면 두곡리	미상
8	미녀봉산성		은산면 가중리	백제
9	반산성		규암면 반산리	백제
10	봉황산성		구룡면 죽절리	백제
11	부산성		규암면 진변리	백제
12	부소산성	사적 5	부여읍 쌍북리, 구교리, 구아리	백제
13	북고리 증산성		장암면 북고리 산 1	백제
14	사자봉산성		은산면 신성리	백제
15	석성산성	사적 89	석성면 현내리 83	백제
16	성흥산성	사적 4	임천면 군동리 산 1	백제
17	시랭이산성		장암면 하황리	백제
18	외리산성		규암면 외리	백제
19	울성산성		규암면 신리	백제
20	이목치산성		장암면 원문리	백제
21	이중(은산 당)산성	도기 153	은산면 은산리	백제
22	점상리산성		장암면 점상리	백제
23	주장산성		부여읍 정동리	백제
24	증산성(고성성)	사적 156	규암면 신성리	백제
25	청마산성	사적 34	부여읍 능산리, 용정리	백제
26	청산성	사적 59	부여읍 쌍북리 4-1	백제
27	태봉(북촌리)산성	문자 368	홍산면 북촌리	백제
28	토성산성		세도면 화수리	백제
29	토정산성		홍산면 토정리	미상
30	학동산성		임천면 구교리	통신-고려

것이다. 최무선이 자신이 개발한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대첩을 거둔 사실

은 이 지역이 왜구의 주요 출몰장소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암진성에 대한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읍성이나 마량진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로건설과 개간, 주변지역에 각종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성곽문화재는 날로 파괴되고 있다. 더 이상 파괴되기 전에 규모와 축성법, 성내 시설물 현황이라도 파악해 두는 작업이 시급해 보인다.

서천지역에서는 견지산성과 남산성이 발굴조사되었다.<sup>50)</sup> 견지산성은 한때 백제 周留城으로 여겨져 오던 곳이었었는데, 조사 결과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초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산성은 일부만 발굴조사된 상태인데, 정교하게 축조한 성벽과 성문, 그리고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유물의 대부분은 통일신라시대의 것이었지만 그 중 일부는 백제토기편으로 보아지는 것도 있어 초축 시기는 앞으로 더 많은 조사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

서천지역은 금강 하류역에 해당된다는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성곽문화재의 조사가 특히 중요하다.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한결같이 당나라 군대의 전진을 저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 금강 하구를 꼽았다. 그런 점에서 금강 하류의 개발사업에는 주변지역의 성곽에 대한 조사와 정비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청양지역에는 모두 15개소의 크고 작은 성곽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청양 읍내에 있는 牛山城이 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청양지역은 차령산맥의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 역사시대 내내 중요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을 것으로 보는 선입관이 있다. 그러나 부여에서 서산이다 당진으로 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청양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청양지역의 성곽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0) ①忠淸埋葬文化財研究院, 『乾芝山城』, 1999.

②趙源昌, 『乾芝山城發掘調查報告書』, 2001.

③忠淸埋葬文化財研究院, 『南山城發掘調查概略報告書』, 2002.

<표 11> 서천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갈물리 산성		마산면 지산리	백제
2	건지산성	사적 60	한산면 지현리, 호암리	백제
3	관적곡 산성		비인면 성내리 관적곡	미상
4	남산성(영취산성)	도기 196	서천읍 남산리, 마서면 봉남리	백제-조선
5	대월리 산성		서천읍 대월리	미상
6	둔덕리 산성		서천읍 둔덕리 태외산	백제
7	마량진성		서면 마량리	조선
8	만덕리 산성		판교면 만덕리 와치마을 태외산	백제
9	벽오리 산성		마산면 벽오리 월명산	미상
10	봉남리 산성		마서면 봉남리	미상
11	불당곡 산성		비인면 성내리 불당곡	미상
12	비인읍성	문자 133	비인면 성내리	조선
13	산천리 산성		종천면 산천리	백제
14	서천 장암진성	도기 97	장항읍 장암리 성안부락	조선
15	서천읍성	문자 132	서천읍 군사리	조선
16	서태산성		마서면 옥북리 분절마을	미상
17	선도리 산성		비인면 선도리 용수마을 곤주산 남쪽	미상
18	성북리 산성		비인면 새터말 뒷산	백제
19	송내리 산성		마서면 송내리 장항읍 성주동	미상
20	영모리 산성		기산면 영모리	미상
21	월명산성		비인면 성내리 월명산	백제
22	월성산성		한산면 나교리 월성산	미상
23	장구리 산성		종천면 장구리 태외산	백제
24	장포리 산성		비인면 장포리 포성대	백제
25	저산리 산성		판교면 저산리	미상
26	중태산성		마서면 덕암리	미상
27	지원리 산성		문산면 지원리 산5	백제
28	태성리 산성		시초면 태성리	미상
29	풍정리 산성		시초면 풍정리 두루재	백제
30	한산읍성	문자 134	한산면 지현리	조선
31	한성리 산성		마서면 한성리	백제

<표 12> 청양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 적 명	지정번호	위 치	시 대
1	갓골 토성		청양읍 정좌리 1구	백제
2	계봉 산성		정산면 백곡리	백제
3	군량리 토성		청양읍 군량리 고군량들	백제
4	문성리 산성		정산면 광생리, 덕성리	미상
5	방한리 산성		비봉면 방한리	백제
6	백곡리산성 (두릉이성)	문자 156	정산면 백곡리	백제
7	벌초막 토성		정산면 덕성리 1구	백제
8	새재 산성		비봉면 사점리 새재	미상
9	우산성(우성산성)	도기 81	청양읍 읍내리 1구	백제
10	적곡리 산성		장평면 적곡리	미상
11	제미재 토성		청양읍 적루리 제미재	백제
12	좌동 석성		청양읍 정좌리 2구	미상
13	천마봉 산성		청양읍 군량리 쇠동마을	미상
14	태봉 토성		목면 신흥리 태봉	백제
15	테외 산성		청양읍 적루리	백제

예컨대 정산면 백곡리에 있는 계봉산성은 백제 부흥운동시에 중요한 거점성 역할을 하였던 豆良(陵)尹城으로 알려져 있다.<sup>51)</sup>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계봉산성은 豆良尹城으로 불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청양지역 관내에 분포하는 산성에 대한 기초조사라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牛山城에 대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청양지역 산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의 신호탄이라 보아지기 때문이다.

홍성지역은 충남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음성 1개소를 비롯하여 모

51) 沈正輔, 「百濟 復興軍의 主要 據點에 關한 研究」, 『百濟研究』 14, 忠南大 百濟研究所, 1983, p.165.

두 19개소의 성곽이 분포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석성산성과 신금성이 발굴조사되어 그 규모와 구조가 확인되었다.<sup>52)</sup>

신금성은 나지막한 구릉위에 자리하고 있는 토성인데, 성내에서 많은 양의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성벽은 통일신라시기인 9세기대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土壘를 축조하기 위해 구축한 永定柱孔의 간격이 3m 이상으로 길게 벌어져 있는 것이 축조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보게 한다.

석성산성의 건물지는 백제시대 기와편과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함께 출토되어 축조시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통일신라시기의 유물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통일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한편, 홍성지역에 있는 학성산성은 지표조사를 통해 간단히 규모만 알려진 상태인데, 위치나 규모, 축성법 등으로 보아 백제 부흥운동시 중심성으로 기능하였던 任存城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53)</sup>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임존성 관련 기사와 『해동지도』에 보이는 鳳首山城과 任存城의 관계가 그러한 입론의 방증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학성산성에 대한 정밀 조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산지역은 충남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읍성 2개소를 비롯하여 모두 21개소의 성곽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지역에서는 임존성만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그 규모와 구조가 일부 확인되었을 뿐 조사가 극히 미진한 실정이다.

임존성은 오래 전부터 백제 부흥운동시에 부흥군의 중심 거점성으로 알려져 왔는데,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성곽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임존관’이란 명문와가 수습되었으며,<sup>54)</sup>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에 나타나는 성곽으로,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성으로 추정된다.

---

52) 李康承 外, 『神衿城』, 忠南大學校 博物館, 1996.

祥明大學校 博物館, 『洪城 石城山城 建物址 發掘調査報告書』, 1998.

53) 徐程錫, 「百濟 5方城 位置에 대한 試考」, 『湖西考古學』 3輯, 2000.

54) 忠南發展研究院, 『禮山 任存城』, 2001.

<표 13> 홍성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결성산성		결성면 읍내리 석당산	통일신라
2	결성읍성		결성면 읍내리	조선
3	구룡리 산성		홍성읍 구룡리	통일신라
4	내법리산성		홍성읍 내법리	통일신라
5	만경산성		홍동면 팔괘리	미상
6	매성봉산성		광천읍 매현리	미상
7	백월산성		홍성읍 월산리	고려
8	봉화산성		갈산면 취생리	조선
9	송암리산성		금마면 송암리 퇴묘산정	통일신라
10	신금성	도기 149	결성면 금곡리	통일신라
11	용봉산성		홍북면 상하리-신경리	통일신라
12	장곡산성	문자 360	장곡면 산성리 산88-2	통일신라
13	천태리 태봉산성		장곡면 천태리	미상
14	천태리산성		장곡면 천태리	미상
15	태봉산성		광천읍 담산리	통일신라
16	학성산성		장곡면 산성리 산24-1,23-2일대	미상
17	홍주읍성	사적 231	홍성읍 오관리	조선
18	홍주읍성 조양문		홍성읍 오관리	조선
19	효학리산성		홍동면 효학리	미상

그런 만큼 앞으로 임존성에 대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성격  
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산성리산성은 無限川가에 자리한 나지막한 토성으로, 성내에서 다  
량의 백제기와편이 수습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산성은 백제  
사라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그렇게된 다음에는 국가 사적이  
나 도지정 기념물로 라도 등록할 필요가 있다.

태안지역은 읍성 1개소, 鎭城 2개소를 비롯하여 모두 16개소의 성곽이  
확인되었다. 그중 백화산성은 정밀지표조사를 거쳐 백제산성으로 확인되  
었고, 조선시대의 성곽인 태안읍성의 경우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안흥진  
성, 소근진성이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sup>55)</sup>.

<표 14> 예산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치	시대
1	금후산성		고덕면 대천리	백제
2	대홍읍성		대홍면 상중리, 동서리	조선
3	덕산읍성		덕산면 읍내리	고려-조선
4	도토성		덕산면 읍내리	미상
5	마전리 토성		대술면 마전리 고성	미상
6	반챙이 토성		삼교읍 수촌리	미상
7	사동석성		덕산면 사동리	백제
8	상성리 토성		삼교읍 상성리	미상
9	상장리 토성		고덕면 상장리 개자시	백제
10	상중리 석성		대홍면 상중리	백제
11	성리 토성		삼교읍 성리 목시	미상
12	수암산성		삼교읍 신리	조선
13	시동리 대천태 산성		봉산면 시동리	백제-고려
14	시동리 소천태 산성		봉산면 시동리 바깥테미	백제-고려
15	신속리 토성		대홍면 신속리 백월산	백제
16	예산산성	도기 30	예산을 산성리	미상
17	이리 밖다락미 토성		삼교읍 이리	미상
18	이리 안다락미 토성		삼교읍 이리 안다락미	미상
19	임존성(봉수산성)	사적 90	대홍면 상중리 봉수산	백제
20	장전리 토성		광시면 장전리	미상
21	테외산 토성		응봉면 건지화리	미상

백화산성은 조사결과 백제시대 산성으로 판단되는데, 지표조사만으로는 편년을 내리기가 어려운 만큼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백화산성은 다른 산성에 비해 축성법이 정교한 만큼 축성 시기만 밝혀진다면 앞으로 성벽 복원의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런 점에서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55) ①忠南發展研究院, 『白華山城』, 2002.  
 ②忠南發展研究院, 『泰安邑城』, 2003.  
 ③李南奭·徐程錫, 『安興鎭城』,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5.  
 ④李海濬 外, 『所斤鎭城』,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6.

<표 15> 태안지역 성곽 일람표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 치	시 대
1	금굴산성		태안읍 삭선리 3구	고려
2	달산리 산성		남면 달산리 테미재	삼국
3	두야리 구수산성		근흥면 두야리	삼국
4	두야리 대왕산성		근흥면 두야리	미상
5	백화산성	문자 212	태안읍 동문리	고려
6	소근(소근포)진성	도기 93	소원면 소근리 산2의 13필	조선
7	신덕리 토성		소원면 신덕리	미상
8	안흥(안흥진)성	도기 11	근흥면 정죽리	조선
9	양잠리 산성		남면 양잠리 새암골	미상
10	정죽리 지령산성		근흥면 정죽리	조선
11	철마산 마성		소원면 소근리	미상
12	태안읍성		태안읍 남문리	조선
13	토성산성		근흥면 수룡리	조선
14	퇴봉산성		원북면 이곡리	미상
15	포지리 토성		이원면 포지리	미상
16	한의산성		원북면 양산리, 태안읍	고려

또한, 이 백화산성의 정상부에는 조선시대 봉수대가 남아 있는데, 이 또한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규모와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봉수대는 무관심과 방치속에 나날이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발굴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정비·복원할 필요가 있다.

당진군내에는 읍성 2개소, 진성 1개소를 비롯하여 모두 22개소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다. 그 중 면천읍성만이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그 구조 및 규모가 정확하게 확인되었을 뿐 그 외의 성곽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특히 蒙山城은 사료에 보이는 避城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는 만큼 최소한의 조사라도 이루어져 축성 시기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표 16> 당진지역 성곽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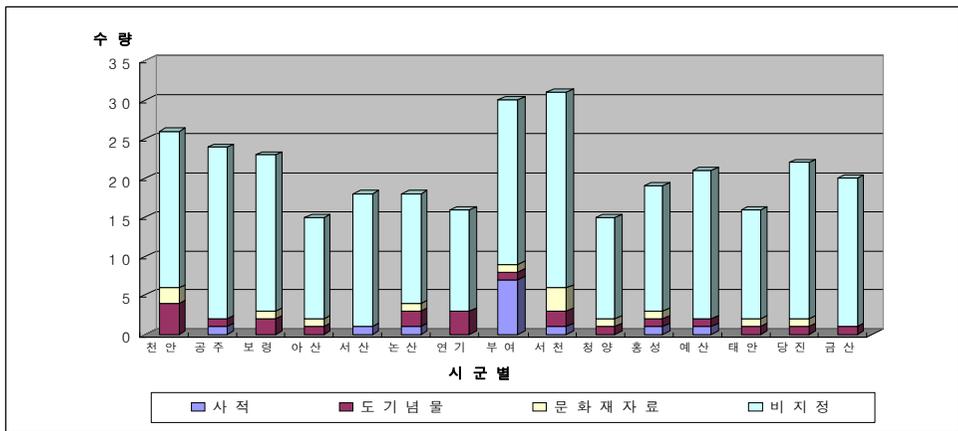
번호	유적명	지정번호	위 치	시 대
1	가성산성		당진읍 우두리	미상
2	국사봉산성		정미면 봉생리	미상
3	당산성		순성면 본리	백제
4	당진읍성		당진읍 읍내리	조선
5	당진포진성	문자 365	고대면 당진포리	조선
6	면천읍성	도기 91	면천면 성상리	고려-조선
7	몽산성		면천면 성상리	미상
8	성동리산성		합덕읍 성동리	백제
9	성산리산성		석문면 성산리	미상
10	성산성		정미면 산성리	미상
11	성하리산성		오천면 성하리	미상
12	송악산성		송악면 중흥리	미상
13	우두산성(대성)		당진읍 우두리	미상
14	운정리산성		신평면 운정리	백제
15	옹포성		석문면 통정리	미상
16	원치리산성		우강면 원치리	미상
17	자모산성		정미면 산성리	미상
18	작문재토성		송산면 유곡리	미상
19	장고항성		석문면 장고항리	미상
20	창리산성		우강면 창리	조선
21	창택산성		송산면 도문리	미상
22	태성산성		당진읍 행정리	미상

## 2. 정비·복원의 현황

이상으로 각 시군별 성곽의 분포 현황과 특징, 조사여부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충남도내에 분포하는 성곽은 총 314 개소가 조사되었는데 시대별로는 삼국시대 백제의 성곽이 143개로 총 수의 46%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그러나 시대미상이 40%에 가까운 이유는 아직 정밀 조사가 미흡하여 유적의 규모나 구조, 시대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판단이 유보된 경우이다.

<표 17> 충남도내 시군별 성곽 현황

시군별 시대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금산	계
삼국시대	17	17	11		4	5	6	26	13	10	8	8	2	3	13	143
고려시대	1		6				1	1			1	1	3	1	2	17
조선시대			3	1	4				5		4	2	5	3		27
시대미상	8	7	3	14	10	13	9	3	13	5	6	10	6	15	5	127
계	26	24	23	15	18	18	16	30	31	15	19	21	16	22	20	314



지역별로는 부여와 서천이 각각 30, 31개소가 분포되어 있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대체로 각 시군마다 15개소 이상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경남지역에 이어 가장 많은 수의 성곽이 분포하는 만큼 그 중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곽도 적지않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옛 백제의 왕도 주변에 있는 성곽들은 백제산성의 典型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곽에 대한 조사는 부진한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었던 산성도 그렇고, 사적으로 지정된 산성도 그렇고 최소한의 지표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곽의 축성법은 고사하고 규모나 구조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성벽의 정비·복원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백제역사재현단지에 재현할 자료조차 변변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화유적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의 문화창조의 귀감이 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유적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감동과 지혜를 선사할 수 있어야 문화재로써의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유적을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증을 통해 정비·복원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곽문화재는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도 인색한 실정이다.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발굴조사와 같은 기초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된 성벽이 원형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을지 만무하다. 전문가의 참가가 생략되어 있는 것도 원래의 성벽과 복원된 성벽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선 순위를 정해 해당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정비·복원의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에 도달했다.

## 제2절 성곽문화재 지정현황

우리나라의 성곽문화재 중 지정된 문화재는 총 353개소 정도로 사적 84개소, 시도기념물 215개소, 문화재자료 54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그 중 충청남도는 사적 15.48% 시도기념물 9.65%, 문화재자료 13.52%를 차지하고 있다.

<표 18> 성곽문화재 국가지정현황 (2003년 9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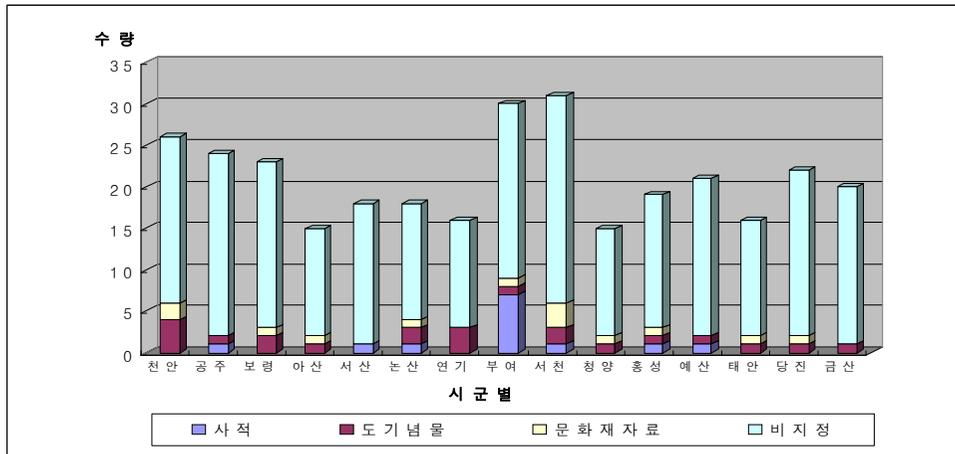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사적	6	1	1	2	0	1	2	13	2	7	13	7	9	10	10	0	0	84
시도기념물	1	10	4	5	1	23	5	15	9	10	23	18	25	10	51	5	0	215
문화재자료	0	0	0	0	2	0	4	0	2	0	13	7	5	2	19	0	0	54
계	7	11	5	7	3	24	11	28	13	17	49	32	39	22	80	5	0	353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문화재 84건 중 경기와 충남이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었다. 시도기념물은 215건 중 경남이 51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25건, 대전과 충남이 23건씩으로 다음이다. 대전 충남을 한 권역으로 본다면 46건을 차지해 경남에 이어 다음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문화재자료는 54건이 지정되었는데 역시 경남 19건에 이어 13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표 19> 시군별 성곽문화재 지정현황 (2003년 현재)

시군별 지정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금산	계
사적		1			1	1		7	1		1	1				13
시도기념물	4	1	2	1		2	3	1	2	1	1	1	1	1	1	22
문화재자료	2		1	1		1		1	3	1	1		1	1		13
비지정	20	22	20	13	17	14	13	21	25	13	16	19	14	20	19	266
계	26	24	23	15	18	18	16	30	31	15	19	21	16	22	20	314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성곽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겠다.

지정 순으로 보면 사적이 13개소로 5%이내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지정

성곽이 266개소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성곽유적이 가장 많은 곳은 서천과 부여지역인데 부여의 경우 백제의 고도였던 관계로 사적이 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서천의 경우는 부여로 통하는 입구인 금강하류역에 해당하는 입지상의 군사요충지로서 31개소의 성곽이 분포되어 있으나 사적 1개소를 포함하여 6개소의 성곽만이 지정되어 있을 뿐 25개소는 비지정문화재이다. 금산은 20여개소의 성곽 중 백령성 1개소만이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성곽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활발한 조사와 정비복원 등을 통해 성곽의 지정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 제3절 성곽문화재 보수정비 사업현황

충남 도내에 분포하는 성곽문화재의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곽의 보수정비 사업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성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거나 실제로 훼손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초조사가 생략된 채 성벽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원의 목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정비·복원이 이루어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안지역은 총 26개소의 성곽 중 지정문화재로 관리되면서 보수 및 정비복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적은 백석동 토성을 비롯하여 도기념물 4개소와 문화재자료 1개소이다. 이 성곽들은 지표조사나 시굴 및 발굴조사 등의 학술조사를 통해 그 시대적 성격과 규모 등이 일부라도 확인된 유적으로 사산성, 성거산성, 세성산성, 위례산성, 흑성산성 등이다.

그러나 이 중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통해 보수나 정비 복원된 유적은 없으며 다만 백석동 토성은 백석동 지역에 천안 제3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매장문화재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나마 일부는 훼손되고, 나머지 성곽만 정비되어 그 형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주지역은 백제 古都로서 공산성을 비롯하여 모두 24개소의 성곽이 분포되어 있는데, 사적12호인 공산성과 도기념물 99호인 옥녀봉산성 등 2개소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 모두 비지정상태로 남아 있다. 당연히 각종 투자는 지정문화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수정비사업은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공산성에 국한하여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고 있다. 공산성이 중요한 유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공산성에만 보수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산성의 경우 성벽의 보수 및 복원과 건물지 발굴조사 및 정비가 10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성안마을 정비계획이 추진 중이다.

보령지역은 모두 23개소의 성곽 중 도기념물 10호인 남포읍성을 비롯하여 보령읍성, 오천 수영성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남포읍성의 경우 성벽의 복원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오천 수영성은 홍예문을 비롯하여 성벽 일부가 복원되었으며, 보령읍성 역시 성벽 일부가 복원되었다.

그러나 이들 성곽문화재의 복원 과정에서 정밀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등을 통한 기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정비계획 또한 수립되지 않은 채 성벽이 복원된 상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벽에서 가장 중요한 축성법이 원형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벽의 통과선이 뒤바뀐 곳도 있다.

아산지역은 모두 15개소의 성곽이 분포되어 있는데 도기념물 67호인 배방산성과 문화재자료 244호인 학성산성만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성곽문화재 중 배방산성은 정밀지표조사 등 기초조사나 보수정비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학성산성의 경우 정밀지표조사와 함께 성벽의 일부가 복원되었다.

학성산성의 경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표조사 결과만 가지고 성벽 복원이 추진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효율적인 복원을 위해 기존에 잔존해 있던 성벽까지 헐어버리고 다시 축조한 것은 복원이라기 보다 차라리 또 다른 파괴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성벽 복원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한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산지역은 18개소의 성곽 중 해미읍성만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116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해미읍성은 성곽의 보수 정비뿐만 아니라 성내 정비가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지 발굴조사와 함께 복원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부성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해미읍성은 성벽의 보존이 잘된 몇 안되는 읍성 중의 하나인데, 문제는 성벽만 보존되어 있고, 그 안에 있던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데 있다. 원래는 그 안에 민가가 관아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가가 모두 철거되어 황량한 느낌을 준다. 마치 박제된 유적 같은 느낌이다.

논산지역은 18개소의 성곽 중 사적 393호인 노성산성을 비롯하여 외성리산성, 황산성, 황화산성 등 3개소의 도기념물 등 4개소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성곽 중 노성산성은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사적으로 지정되었는데 최근 시굴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복원사업은 아직 시행된 바 없으며 다른 성곽유적도 마찬가지이다.

금산지역은 20개소의 성곽 중 도기념물 83호인 백령성만이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금산군에서는 최근에 들어 성곽문화재의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령성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백제시대에 축성된 성곽으로 확인되면서 문지 및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를 계획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기지역은 16개소의 성곽 중 도기념물 79호인 운주산성을 비롯하여 금이성과 이성산성이 3개소의 성곽문화재가 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성곽 중 운주산성은 정밀지표조사와 함께 성벽 및 건물지 발굴조사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결과를 기초로하여 동문지와 서문지를 복원하였다. 또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활용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운주산성의 성벽은 성돌의 재질과 축성법이 완전히 원형과 어긋나 있다. 다만 최근에 복원한 부분은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도 성돌을 자르거나 治石할 때 사용한 기계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부여지역은 30개소의 성곽 중 사적 5호인 부소산성을 비롯하여 7개소의 국가 사적과 도기념물 1개소, 문화재자료 1개소 등 7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부여는 공주와 함께 옛 백제 도읍지로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보수정비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대체적으로 부소산성에 집중되었다.

사적 4호인 성흥산성의 경우 동문지 발굴조사 후 문지와 일부 구간의 성벽복원이 이루어졌으나 체계적인 정비계획 아래 추진된 것은 아니다. 성돌의 治石도 중요하지만 治石한 성돌을 쌓아 올리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 직선형쌓기와 곡선형 쌓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복원된 성벽이 모두 직선형쌓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사적 58호인 나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되면서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마산성, 증산성 등 사적으로 지정된 중요 성곽들조차도 아직 정밀지표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추후 보수정비사업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천지역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31개소의 성곽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사적 60호인 건지산성을 비롯하여 남산성 등 6개소의 성곽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건지산성의 경우 그동안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추정되어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거친 결과 고려시대로 판명되었다. 남산성의 경우 최근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시대 성곽으로 확인되었고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조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양지역은 15개소의 성곽 중 도기념물 81호인 우산성과 문화재자료 156호인 백곡리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최근 우산성의 경우 정밀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추진하였을 뿐 아직 체계적인 보수정비사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홍성지역은 19개소의 성곽 중 사적 231호인 홍주읍성을 비롯하여 신금성과 장곡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홍주읍성의 경우 최

근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기적인 보수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신금성의 경우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 후 일부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비지정문화재인 학성산성의 건물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예산지역은 21개소의 성곽유적 중 사적 90호인 임존성과 도기념물인 예산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임존성의 경우 정밀지표조사 후 성벽의 일부 구간이 복원되었다. 그러나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나 정비계획없이 추진되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며, 예산산성의 경우는 조사나 보수정비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태안지역은 16개소의 성곽 중 도기념물 11호인 안흥진성을 비롯하여 소근진성과 백화산성이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안흥진성과 소근진성은 모두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그 성격과 규모가 확인되었고, 안흥진성은 문지와 성벽 일부가 복원되었다. 백화산성은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백제시대 산성으로 확인되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진지역은 22개소의 성곽 중 도기념물 91호인 면천읍성과 문화재자료 365호인 당진포진성이 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면천읍성의 경우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그 규모와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성벽의 일부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성돌의 재질, 治石방법, 축성법 등에서 원형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그나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나 보수정비사업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내 관방유적에 대한 보수 정비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위의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성곽은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 13개소 중 3개소에 불과하며, 도기념물은 24개소 중 7개소, 문화재자료는 1개소 뿐이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정밀지표조사부터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굴·발굴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지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곽의 현황이나 성내에 수습되는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물론이고, 성곽을 어떻게 정비·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적들도 마찬가지로

지다. 현재 사적 중에는 공산성, 부소산성에 집중되어 있을 뿐 나머지 사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여에 있는 청마산성, 증산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성벽의 둘레를 알기 위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규모와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외 토지매입이나 보수 정비는 역시 사적 일부에 집중 투입되고 있을 뿐 도기념물이나 문화재자료 또는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문화재로 지정된 대표적인 산성과 읍성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본 결과 조사와 정비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고 또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성벽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활용계획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제4절 성곽관리의 문제점

### 1. 성벽복원 기술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성곽은 산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웃한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성곽의 대부분은 평지에 자리한 평지성이 특징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곽은 이미 고조선시대부터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성벽을 축조하여 왔다.

1.1.2. 충남 도내에 자리하고 있는 성곽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의 읍성이나 통일신라시대에 출현하는 몇몇 평산성, 혹은 평지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곽이 險山에 의지해 산성의 형태로 남아 있다.

1.1.3. 성곽이 민간인의 손에 닿기 어려운 險山에 자리한다는 사실은 유적 보존을 위해 다행스런 면이 없지 않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산성에 대한 조사가 별반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였다.

1.1.4. 그런데, 최근들어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발길이 닿지 않았던 산성을 찾는 발길이 부쩍 많아졌다. 자연히 지자체에서는 그 동안

무관심속에 방치해 놓았던 성곽문화재를 조사하여 복원할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읍성의 경우, 현재의 시가지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 도시 개발과 더불어 나날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만큼 조사와 정비·복원이 필요성은 한층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최근들어 각지에서 성곽의 정비·복원 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비·복원의 가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성곽문화재라는 점도 이러한 붐을 일으키는데 한몫 했음은 물론이다.

<표 20>산성·읍성 보존관리현황의 예

	지표 조사	시굴·발 굴조사	정비계획	유적정비		활용 계획	현재 활용	
				성벽복원	건물지정비			
산 성	임존 성	○	×	×	성벽일부	×	추진	역사탐방, 등산
	성흥 산성	×	동문지	×	" "	×	×	역사탐방, 등산
	운주 산성	○	동서문지	×	문지, 성벽	×	추진	역사탐방, 등산
	학성 산성	○	×	×	성벽일부	×	×	등산
읍 성	해미 읍성	×	건물지	정비계획	성벽	관아 일부	수립	역사탐방, 민속축제
	태안 읍성	○	성벽일부	기본계획	×	×	수립	미활용
	남포 읍성	×	×	×	성벽	×	×	미활용
	면천 읍성	○	×	×	성벽	×	×	미활용

1.1.5. 충남 도내에도 최근들어 성벽의 정비·복원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벽 복원이 이루어진 예를 보면 아산의 학성산성, 연기 운주산성, 예산 임존성, 부여 성흥산성 등을 들 수 있고, 읍성으로는 당진 면천읍성과 보령의 보령읍성·남포읍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재의 보호·조사·연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정비·복원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데 있다면 성벽의 정비·복원 역시 당연한 작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벽의 정비·복원에는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각지역에서 진행된 성벽의 정비·복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벽축조 재료에 대한 문제다. 성벽은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방어시설인 만큼 붕괴되지 않도록 축조에도 정성을 다하마지만 특히 축조 재료도 양질의 화강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진행된 성벽의 정비·복원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양질의 화강암을 사용한 곳도 있지만 구하기 쉬운 석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래의 성벽과 차이를 보이는 곳 또한 없지 않다.

두 번째는 시대별 특징이 드러나지 않게 정비·복원되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도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았듯이 성벽을 축조하는데 사용하는 성돌은 治石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대산성의 경우 자연석이나 할석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일정한 크기로 治石한 성돌을 사용하여 축조한 예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治石한 성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治石하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설령 성돌을 治石한다 하더라도 시대별 治石의 방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문제점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마디로 治石한다고는 하지만 治石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판석형 성돌로 치서하는 방법이 있고, 장방형으로 치석하는 방법, 방형으로 치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치석법은 성곽을 축조한 시기를 말해주는 것이며, 축조 주체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비·복원된 성벽을 보면 이 부분에 소홀했다. 그러다보니 처음 조사한 보고서상에 제시도니 특징과 정비·복원된 후의 특징이 잘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곳도 있다.

네 번째는 축성술을 재현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다. 치석을 성돌을 사용하여

성벽을 축조하는 경우에도 축성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바른층쌓기 방식으로 축조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허튼층쌓기 방식으로 축조하는 예도 있고, 직선형쌓기가 있는가 하면 곡선형쌓기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축조 시기를 말해주는 것이자, 축성 주체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성돌을 쌓아 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쌓아 올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비·복원된 성벽을 보면 원형을 충실히 재현한 경우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는 성벽의 복원에만 치중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한 마디로 성벽이라고는 하지만 성벽을 구성하는 요소는 面石과, 뒤채움석, 그리고 內托部 등이 있다. 片築式의 형태로 성벽이 축조되는 산성의 경우에는 문제가 덜 하지만 읍성의 경우 성벽의 面石보다 더 중요한 것이 內托部다. 내탁부가 붕괴되지 않아야 성벽이 붕괴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읍성 복원은 面石의 복원에 그치고 있다. 내탁부가 방치되고 있는 만큼 복원된 성곽이 붕괴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 번째로는 전체 성벽 중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복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성벽은 다른 유적과 달리 지상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큰 유적이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자칫 전시 효과를 노린 복원을 위한 복원이 되기 쉽다는 뜻이다. 문화재의 복원은 문화재의 특징과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다.

일곱 번째로는 성곽 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성곽은 일차적으로 방어시설인 만큼 성곽에 오르면 주변지역에 대한 조망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산성의 경우 이러한 視界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곽들이 성벽의 복원에 국한될 뿐 성내에서 주변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성곽 주변의 잡목이라도 제거하는 성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 성벽 복원의 실태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정비·복원된 몇몇 성곽을 중심으로 정

비·복원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임존성은 백제 부흥운동 때 부흥군의 중심적인 거점성이었다. 그 후 임존성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성벽의 축조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시대의 축성방법이 함께 확인된다<사진 1~3>.56) 성벽이 한번 초축된 이후 계속해서 修築되면서 다양한 축성법이 동시에 확인되는 것이다. 즉, 성벽의 최하단에는 백제시대의 治石방법 및 가로쌓기 방식이 보이고 있고, 중단 이상으로는 통일신라시대나 고려, 조선시대에 사용된 석재와 축성법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임존성의 복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축성법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가가 핵심사항이다. 즉,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 다양한 축성법을 한꺼번에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초축 당시의 축성법으로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만약 다양한 축성법을 그대로 재현할 것 같으면 현재 남아 있는 성벽 중에서 붕괴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임존성의 정비·복원된 모습을 보면 원래 있던 성벽까지도 모두 헐어버리고 새롭게 성벽을 구축하고 있다. 원래 있었던 성벽을 모두 헐어버리고 새롭게 축성이 이루어진 만큼 원래의 성벽에서 보이던 다양한 축성법은 당연히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초축 당시의 모습을 복원한 것도 아니다. 결국 정체불명의 성벽을 새롭게 축조한 꼴이 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임존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복원이란 말 그대로 원형을 재현하는 것이다. 원형의 유지가 가장 큰 원칙인 것도 그 때문이다. 당연히 성벽의 복원을 위해서는 원래의 성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미 붕괴된 성벽에 대한 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 이루어지는 성벽의 정비·복원작업을 보면 일정 구간의 성벽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새롭게 축조하는 것이 보통이다. 짧은 기간 동안 작업을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성벽의 복원이 아니라 파괴에 다름아니다.

56) 忠南發展研究院, 『禮山 任存城』, 2001.

<사진1> 임존성 성벽 축조현황1



<사진2> 임존성 성벽 축조현황2



이러한 예는 더 있다. 다음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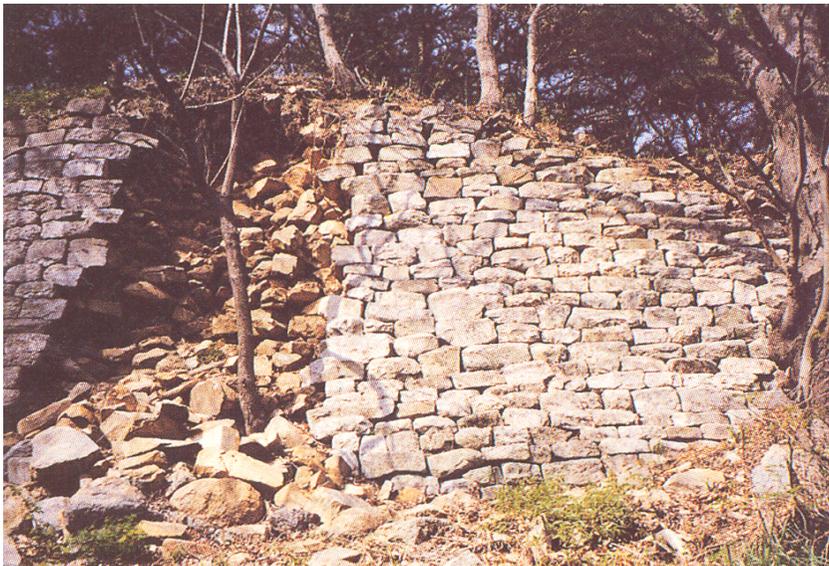
아산 학성산성<사진4, 5>과 당진 면천읍성<사진6, 7>의 성벽 복원 모습이다. 학성산성의 경우, 복원이 이루어진 구간은 원래부터 전체 성벽 중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로 성벽이 남아 있던 구간이었다. 그런데도 이 부

분을 복원하면서 원래의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새롭게 축조하였다. 단지 몇몇 面石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원래 있었던 성벽마저 없어진 꼴이 되고 말았다. 새로 복원한 성벽이 원래의 성벽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사진3> 임존성 성벽 축조현황3



<사진4> 학성산성 보수 전



<사진5> 학성산성 보수 후



<사진6> 먼천읍성 보수 전



<사진7> 면천읍성 보수 후



더구나 성문 주변의 성벽은 복원하지 않고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아마도 성문 주변이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원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그야말로 이상한 형태의 성벽 복원이 되고 말았다. 성벽 복원이 아닌 새로운 성벽 축조라고 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이렇게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성벽의 보수나 정비복원 형태를 보면, 보수정비업자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잘 남아 있는 구간의 성벽도 일괄적으로 헐리고 새로운 석재를 반입하여 최신식 성벽으로 구축되는 것이 공통점이다.

성벽의 보수나 및 수리, 또는 복원은 먼저 성곽의 초축 연대를 파악하고, 성곽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성곽이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다양한 축성법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미리 정해진 후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초축 성벽으로 재현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축성법을 모두 그대로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초축 성벽으로 복원할 것이라면 모르지만 다양한 축성법을 모두 보여줄

요양이라면 당연히 성벽을 헐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괄적으로 헐어내고 다시 축성하면 작업이 쉽게 진행될지는 몰라도 엄격한 의미의 복원이 아니다. 새로운 축성에 불과하다. 원래 있던 성벽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붕괴된 부분만 원래의 성돌처럼 治石하여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성벽 복원작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도면 1>에서 보면 성벽 전체를 헐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양호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부분만 새롭게 보수 복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면 1> 성벽 복원도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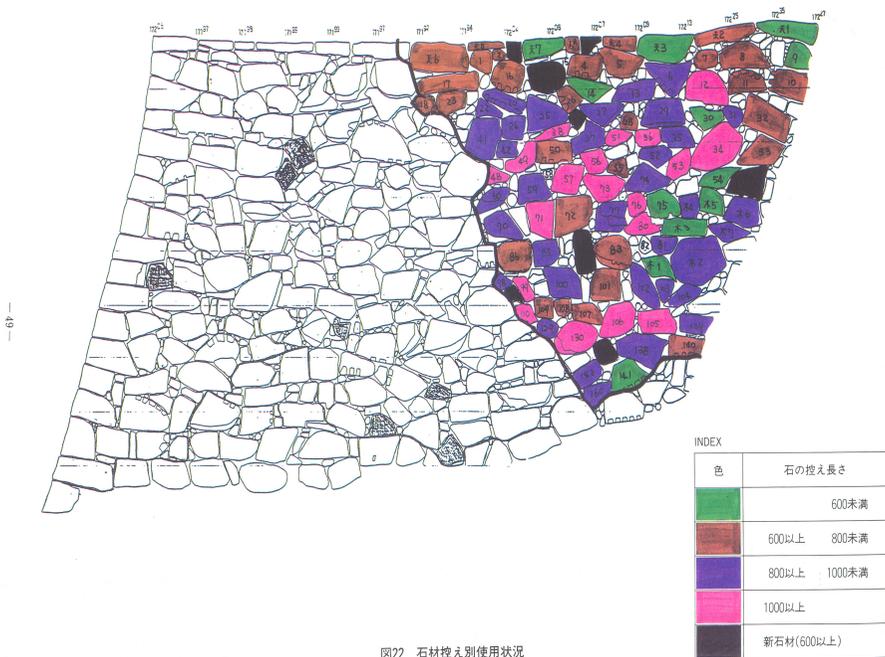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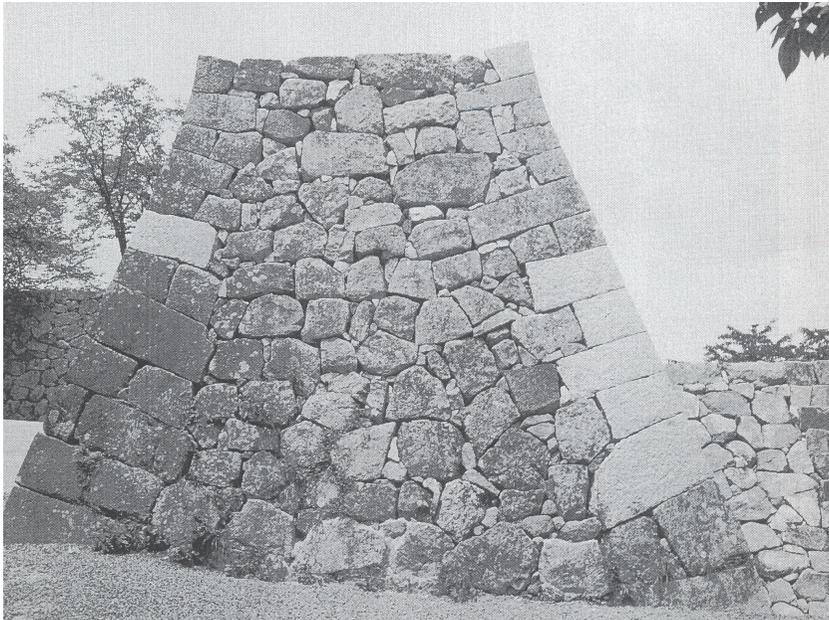
図22 石材控え別使用状況

57) 上野市教育委員会, 『史跡上野城跡石垣保存修理工事報告書』, 1998.

<사진8> 성벽 보수 전 모습



<사진9> 성벽 보수 후 모습



<사진10>성벽 보수 전 모습



<사진11> 성벽 보수 후 모습



<사진12> 성벽의 신석재와 기존석재의 사용 모습



특히 새롭게 복원하는 부분은 기존의 석재와 다르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석재는 모두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녹색, 갈색, 보라, 홍색 등 4가지 색깔로 표현되는 석재는 모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석재로 분류된 것이며, 흑색으로 표시된 석재만이 훼손 및 파괴가 심해 다시 사용하지 못하고 신석재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또한 석재의 사용에 있어서 모든 석재에는 번호를 매겨 기존의 석재는 그 자리에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석재는 원래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일부 재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신석재 역시 기존 성벽에서 나타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성벽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작업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사진8~12>에서 보듯이 기존 성벽과 보수한 성벽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보수한 사진에서 보듯 일부의 신석재가 사용되었고 기존의 성벽을 이루는 석재 중에서도 일부 자연스럽게 다듬어 재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성벽 보수 및 복원을 위해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도면과 같다. 도면에서 보듯이 3~4차에 걸쳐 성벽이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58)</sup> 그런데도 원래의 모습을 충실하게 반영한 복원이 이루어지

고 있다.

반대로 우리의 경우에는 한번에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원형의 특징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성벽 복원을 위해서는 성벽 절개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성벽의 기반부 처리나 面石 안쪽의 뒷채움석에 대한 처리 방법, 내탁부의 처리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곽의 정비보수과정에서 성벽을 절개하거나 성벽 내탁부를 정비하는 경우, 학술적 연구나 시굴·발굴조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비보수 혹은 복원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전문가와 정비보수사업자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지만 체계적인 학술조사의 성격은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애초부터 원형의 재현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비업자는 전문가가 아닌만큼 성벽을 절개한다손 치더라도 기초부의 처리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뒷채움석의 처리방식이나 내탁부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다. 복원이 원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비보수를 담당한 사업자들은 학술적 연구나 조사방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성벽을 일률적으로 헐어버린 뒤 똑같은 방법으로 재건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비·복원이 끝난 다음에 제출되는 修理報告書를 보면 좀 더 분명해 진다. 편의상 일본의 수리보고서와 우리나라 수리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비교표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의 修理報告書는 일본에 비해 대단히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58)</sup> 일본의 수리보고서에 보면 석질은 물론이고 축석의 특징이나 기법까지도 모두 파악하게 되어 있다.

아울러 실제로 성벽을 복원할 경우에는 성돌에 번호를 매긴 다음 교체할 성돌과 그대로 이용할 성돌을 구별하여 성벽 복원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일정 구간의 멀쩡한 성벽을 헐어내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다.

수리보고서에 나타난 사항들을 중심으로 현행 성곽 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8) 上野市教育委員會, 『史跡上野城跡石垣保存修理工事報告書』, 1998.

59) 충청남도, 『문화재수리보고서』, 2000.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이 없다는 사실이다. 수리보고서의 어느 항목에도 누구의 자문을 받아 어떻게 성벽을 복원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성벽을 조사한 전문가 따로, 복원하는 사업자 따로의 형태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벽의 복원이 원형을 재현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는 성벽의 축조에 따르는 건축학적인 면만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성벽은 기초부분과 體城, 그리고 상단부의 女牆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세세한 분석 및 그것을 바탕으로한 복원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경우에는 體城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기초시설이나 여장에 대한 설명은 없다. 성벽의 기초시설을 찾아내지

<표 21> 한국과 일본의 수리보고서 비교표

한국(新昌鶴城)	일본(史蹟上野城跡石垣補修修理工事報告書)
1. 지정별	第1章 事業概要
2. 소재지	1. 築城의 沿革
3. 예산	2. 史蹟의 指定
4. 연혁	3. 石垣修理事業實施에 이르는 經過
5. 주변(건물배치)현황	4. 工事의 經過
6. 보수대상 현황	5. 事業實積
7. 사업개요	6. 工事의 組織
가. 사업지침	第2章 施工
나. 공사내용	1. 石垣修理計劃
토공사	2. 工事의 方法
성곽보수공사	① 現況調査
우수공사	② 撤去工
운반공사	③ 石積工
다. 공사추진내용	第3章 調査
*사진	1. 石垣遺構確認
*도면	2. 地質調査
	3. 石垣의 特色
	4. 石積의 特長
	5. 石材의 特色
	6. 出土遺物
	第4章 附圖
	參考 寫眞

못하거나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벽이 복원되므로써 성벽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 내용이 너무 소략한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용이 소략하다보니 성벽 원형에 대한 분석이나 원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성벽의 복원에만 관심이 두어져 있다. 당연히 성벽의 복원을 위해 除土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유구나 성벽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정확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또한 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즉, 성벽의 해체나 성벽 단면의 절개 등에서 나타나는 많은 유물이나 성벽축조와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를 수습하고 성벽복원에 적용시키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벽의 해체 과정에서는 기존에 일반적인 발굴조사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새로운 자료를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성벽 보수를 위해 해체나 단면절개 등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고학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벽의 해체가 추진될 때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비교하여 적어도 지도 자문위원 및 조사원 등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2. 관리제도의 문제점

### 1) 제도적인 문제 - 성곽보존 관리정책의 문제점

그동안 성곽의 보존관리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이 없이, 호국 선현의 유적에 대한 성역화 사업이나, 문화권 사업에 포함시켜 단위 문화재별로 추진해 오고 있다. 즉 성곽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관리프로그램이 없었다.

비지정 성곽에 대한 제도적인 보존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향토유적으로 지정관리되는 곳도 있으나, 기타유적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관리책임을 자치단체장이 지도록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성곽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물론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성있게 지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같은 성격의 성곽임에도 불구하고, 성내 전지역이 지정된 경우와 성벽을 기준으로 내·외 20m 범위 또는 50m범위까지만 지정된 것 등 보호구역 지정패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 2) 비지정 성곽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부재

성곽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관리 프로그램이 없이 지역적으로 혹은 다른 문화권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다. 전국에 걸쳐 2,137건의 성곽(진, 보,돈 호함)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 중 국가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유적은 16%(사적 92건, 시·도기념물 252건, 문화재자료 54건, 계 344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성곽 들은 개발과정에서 언제든지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 3) 비지정 성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보존 필요

최근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대해 각 시군별로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내에 분포하는 성곽의 분포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재파악이나 특징이 검토된 실정이다.

## 4)성곽내부지역 보호대책부재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성곽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기준<sup>60)</sup>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성벽 및 내부지역은 문화재(사적)로, 성벽 기단을

---

60)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관련)

중심으로 외향 20~50m의 범위내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된 성곽 보호구역은 대부분 성벽위주로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보호구역 지정시 내부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성곽 보존관리상 합리적이거나, 사유재산권 규제와 관련한 민원을 우려한 결과로 생각된다. 성곽의 기능상 내부지역 보존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벽만 지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 사적으로 지정된 성곽에 대하여 재검토를 거쳐 내부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축이나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기 전에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 5) 성곽보수·복원상의 문제점

성곽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조사, 연구 - 정비(보수, 복원) - 관리 - 활용으로 이어지는 체계화가 필요하다.

성곽의 정비사업은 문지 및 성벽의 보수·복원과 성곽 내에 분포하고 있는 건물지 및 시설물의 정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시·군 단위로 대대적으로 문지 및 성벽의 보수·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성곽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성벽의 보수 및 복원사업이다. 성벽은 축조 및 사용 후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보존되고 있고, 또한 여러 번에 걸쳐 수축 또는 개축되면서 복잡한 시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수 및 복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분이 정밀한 기초 조사자료의 수집이다. 성벽을 복원하기 전에는 성곽 축조와 관련된 시대적 성격과 특징, 구조, 재료, 규모를 철저히 분석하여야 한다. 성벽의 복원을 위해서는 성벽을 구성하는 재료인 석재가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성벽의 기울기

와 관련된 뒷채움의 기술적 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벽을 복원하기 전에 해체 과정에서 발견되는 성벽 축조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찰도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성곽보수와 복원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성벽에 대한 보수 복원에 대해 살펴보면, 지표조사의 내용만 가지고도 성벽 복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철저한 고증없이 복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형 왜곡의 위험성 내포되어 있다. 또한 현행 법규로는 비전문가도 자격증만 있으면 성곽의 정비·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복원에 있어서 큰 장애물로 등장한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등 성벽을 실제로 조사한 고고학 전문가와 보수 복원을 담당한 수리기술자 간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성벽의 복원에 있어서 성곽을 조사한 조사자의 의견이 실제 성벽 복원에 반영되지 않는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내용이 제대로 보수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잘못된 복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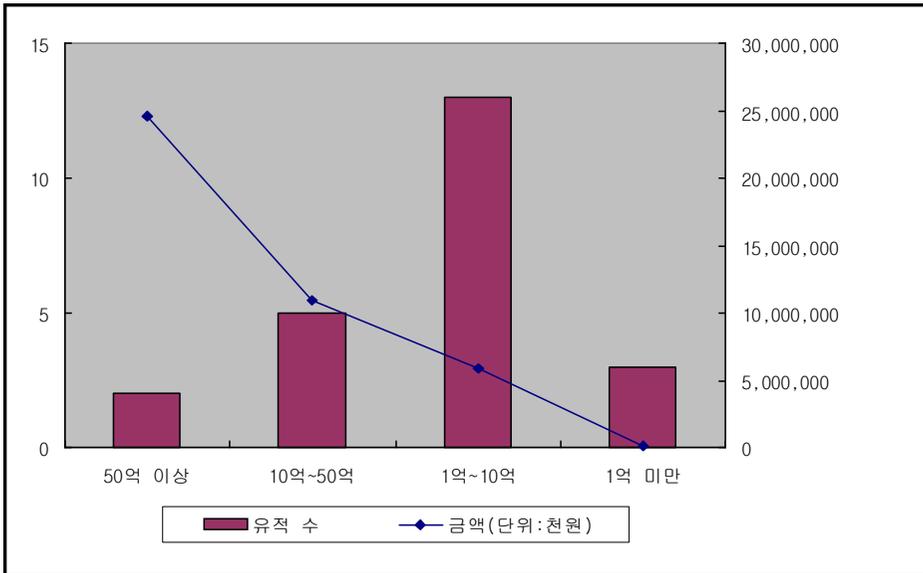
또한 복원 과정과 결과를 담은 보수 및 수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어 보수 복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불가능하다.

### 3. 보수예산의 문제

정비·복원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예산은 국가문화재인 사적과 지방문화재인 기념물이나 문화재자료 등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투입된다. 사적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정비비로 국비가 100% 전액 지원되며, 도기념물 등 지방문화재는 국비 50% + 지방비 50%(도비25% + 시·군비25%)의 비율로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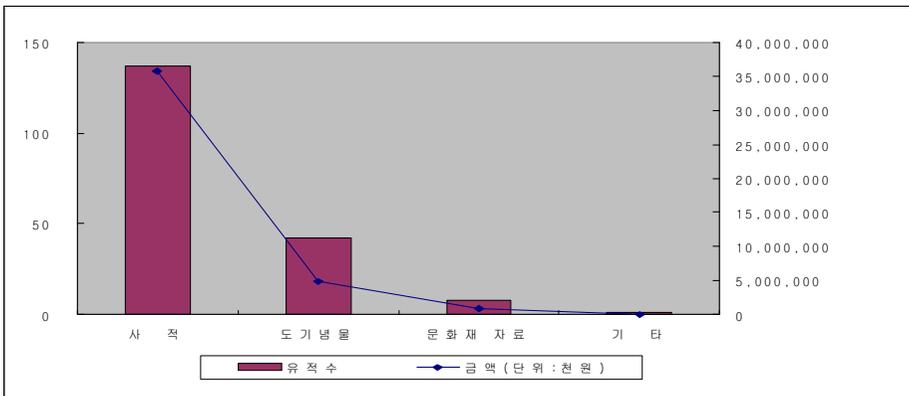
예산의 신청은 시·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 및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도와 문화재청을 그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을 수립 지원하게 된다.

<표 22> 관방유적 사업비 투입 현황 (1982~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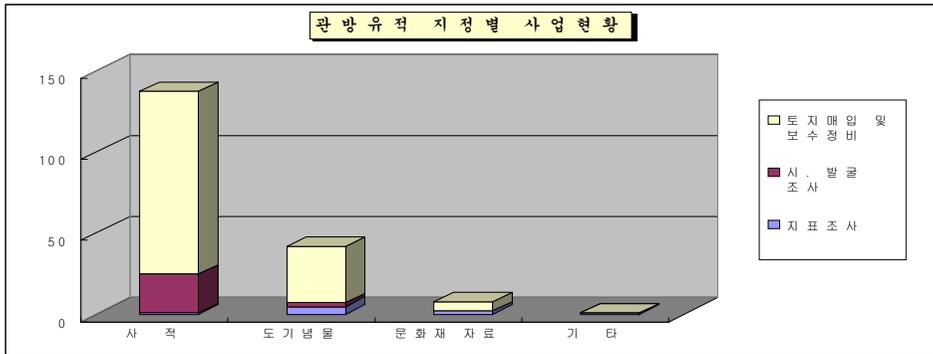
<표 23> 관방유적에 대한 지정별 사업비 투입 현황 (1982~2002년)

구 분	합 계	사 적	도기념물	문화재 자료	기 타
합 계	188	137	42	8	1
지표조사	9	1	5	2	1
시. 발굴 조사	26	24	2	0	0
토지매입 및 보수정비	153	112	35	6	0
금 액	41,628,467	35,783,467	4,852,000	933,000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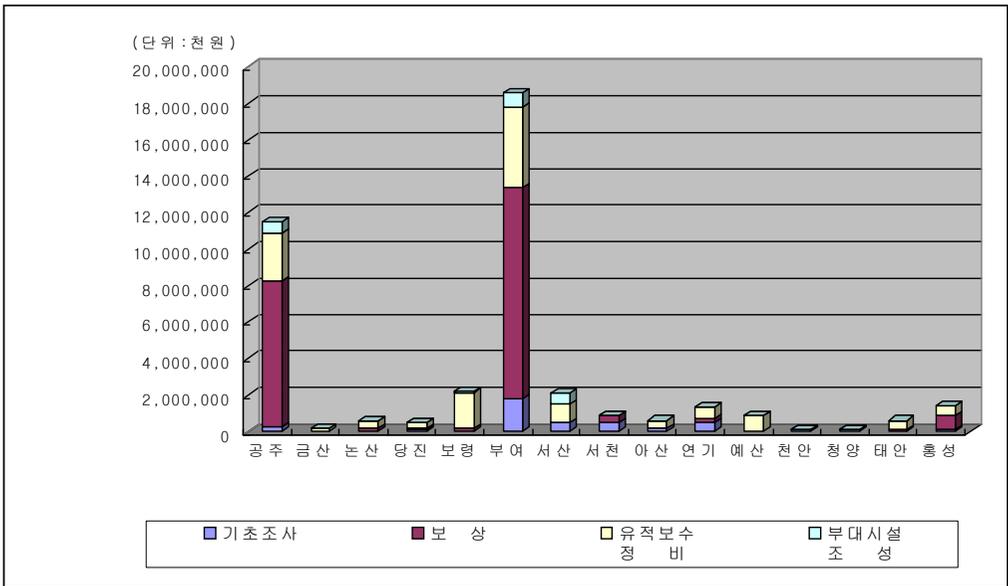
<표 24> 관방유적에 대한 지정별 사업현황 (1982~2002년)

구분	합계	사적	도기념물	문화재자료	기타
합계	188	137	42	8	1
지표조사	9	1	5	2	1
시. 발굴조사	26	24	2	0	0
토지매입 및 보수정비	153	112	35	6	0



<표 25> 관방유적 시 . 군별 사업현황 집계(1982~2002년) (단위 : 천원)

지역명	기초조사	보상	유적보수정비	부대시설조성	합계
공주	249,260	7,967,976	2,662,156	631,362	11,510,754
금산	0	0	200,000	0	200,000
논산	20,000	142,857	411,392	0	574,249
당진	80,000	100,000	312,000	0	492,000
보령	20,000	185,736	1,947,064	58,200	2,211,000
부여	1,814,396	11,588,311	4,390,725	796,167	18,589,599
서산	497,142	21,000	1,000,770	599,999	2,118,911
서천	457,142	428,571	0	0	885,713
아산	200,000	0	400,000	0	600,000
연기	475,600	242,700	653,700	0	1,372,000
예산	0	0	848,571	0	848,571
천안	90,000	0	0	0	90,000
청양	100,000	0	0	0	100,000
태안	35,000	72,300	492,700	0	600,000
홍성	60,000	828,571	547,299	0	1,435,870
합계	4,098,540	21,578,022	13,866,377	2,085,728	41,628,667



문제는 유적의 정비를 위한 예산의 수립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다.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유적 정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및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 연구없이 모호한 계획 위에서 예산의 요구와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중복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청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선 시·군에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제 3 장 성곽문화재 관리의 개선 · 활용방안

### 제1절 관리 개선방안

#### 1. 정비 · 복원 기술의 개선

문화재 조사와 연구의 최종단계는 정비 · 복원이다. 조사와 연구가 내용물이라면 정비와 복원은 그러한 내용물에 대한 포장이다.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문화유적을 찾아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결국 정비 · 복원을 통해 재현된 유적인 만큼 정비 · 복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성곽문화재도 예외는 아니다. 성곽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중요하지만 찾아온 시민들에게 성곽의 의미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비 · 복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정비 · 복원을 위한 방향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정확한 고증을 통한 복원
- ②성벽의 복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자연경관과 조화 필수
- ③문화재적 가치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것만을 복원
- ④활용 가능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고려

축조기술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성벽복원은 시대불문하고 새로운 축대쌓기식의 성벽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지켜져야 한다.

- ①시대별, 기능별 성돌의 채취와 治石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성돌은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럴 경우 성돌

의 재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장방형으로 治石할 것인지, 아니면 세장방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②시대별, 기능별 축조 방법을 달리할 필요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삼국시대 산성은 성벽의 위치에 관계없이 성돌의 크기가 일정한데 비해 조선시대에 축조된 성곽은 위치별로 성돌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복원시에는 이러한 특징을 제대로 살려 주어야 한다.
- ③성벽을 쌓는 방법(직선형, 곡선형)을 달리하여 특징 재현할 필요도 있다. 직선형쌓기와 곡선형쌓기를 구별하는 이유는 직선형쌓기가 신라(계)산성에서 많이 보이는데 비해 곡선형쌓기는 백제(계)산성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 ④성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내탁부에 대한 정비·복원 필요의 필요성도 있다. 특히 조선시대 읍성의 경우에 내탁이 절대적이다. 내탁부가 튼튼해야 성벽이 붕괴되지 않는다.
- ⑤성벽 하단부의 기초시설에 대한 복원도 필요하다.  
성벽 하단부 보축시설의 유무는 백제(계)산성과 신라(계)산성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따라서 성벽 복원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재현이 필수적이다.

## 2. 제도 정비

### 1)성곽관리정책의 정비

#### 가. 비지정문화재의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성곽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 '등록문화재'의 등록 대상에 '비지정 성곽'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1년 3월 28일 신설된 '등록문화재'의 규정(법 제42조)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

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비지정 성곽’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개정되기 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을 다시 부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재보호법 제5장 ‘시·도지정문화재’<sup>61)</sup>장에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법 조항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에 대하여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에 대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보존하여야 한다.> 는 새로운 법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들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62)</sup>

#### 나. 성벽내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확대지정

우선 개발압력에 영향을 덜 받는 산성의 경우에는 내부지역을 모두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읍성에 대하여도 기능상 내부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도심에 위치한 성곽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내부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합리적일 것이다.

#### 다. 성벽 보수 및 복원

성곽 관리의 핵심은 역시 성벽에 대한 보수나 복원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벽의 복원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복원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원 공사를 보면 대부분이 전문가의 참여가 배

---

61) 문화재보호법 제55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62) 이훈근, 우리나라 성곽의 보존관리정책, 한국성곽연구회, 2003

제된 채 그야말로 정비업자들에 의해 성곽이 복원되고 있다. 실제로 그 성곽을 조사한 조사자나 그 성곽의 역사적 의미를 밝혀낸 연구자들은 애초부터 성곽 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심지어는 언제 성곽이 복원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조사·연구자들과 정비업자 사이에 성곽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괴리감이 생기게 마련이다. 복원에 따른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성곽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보존방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전문가가 대상 유적 선정시부터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성곽을 정비·복원할 때에는 어떤 성곽을 어떻게 정비·복원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곽의 정비·복원 과정을 보면 대상 유적의 선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는 막혀있다. 당연히 어떻게 정비·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 후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성곽의 정비·복원에 그치고 활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에서 방법,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로 필요하다.

또한, 정비·복원을 담당한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석재를 다룰 수 있다고 해서 자격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성곽은 축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자는 일단 문화재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 취득시 필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점검해 보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비·복원할 수 있는 전공분야를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석재문화재라 하더라도 성곽과 고분, 사찰, 기타 석재문화재는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이다. 강조해야 할 점, 복원시 표현해야 할 사항들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도 현재는 배수로 공사에서부터 석조문화재의 보수에 이르기까지 몇몇 사업자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성곽을 성곽처럼 쌓지 않고 축대처럼 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정비·복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상지의 선정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조사자가 시행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벽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다. 원형을 파악하는 사람 따로, 복원을 담당하는 사람 따로 라면 그 사이에서 괴리감이 생기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는 조사·연구자와 사업자가 정비·복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원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보고서 작성 및 배포를 의무화 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수리보고서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다. 배포하는 것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책임있는 정비·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리보고서가 간행되어 관계기관이나

<표 26> 성곽문화재의 관리활용 추진 단계

	추진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사	지표조사	■	■		
	시굴·발굴조사	■	■	■	
	기타 학술조사		■	■	
연구	학술연구논문 발표		■	■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	■	■	
지정	도기념물		■	■	
	사적			■	■
보수 정비 복원	정비기본계획	■	■		
	보수·정비 (역사문화환경복원)		■	■	■
관리	관리계획		■	■	
	연차적 관리		■	■	■
활용	기본계획		■	■	■
	관광, 역사체험		■	■	■
	체육, 휴식공간		■	■	■

전문가에게 배포된다면 정비·복원의 잘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를 통해 개선책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복원 후 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원 주체에 대한 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유적의 조사에서도 지도위원회의를 거쳐 유적의 성격이나 연대, 사후이 처리문제 등이 협의된다. 그런데도 정비·복원된 유적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지도위원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있는 정비·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여기에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적에 대한 정비·복원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정비·복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책임있는 정비·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의 표와 같다.

### 3. 예산의 효율적 집행

현행 정비·복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중의 하나가 예산 문제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뚜렷한 목표 없이 정비·복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중복투자, 불필요한 예산 투자 등이 이루어져 결국 엄청난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고비용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예산 집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문가와 협의하에 대상 유적을 선정하고, 그 유적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청사진에 비추어 발굴조사나 정비·복원의 규모를 산정하고 소요 예산을 확정한다면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곽의 정비·복원 과정을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정비·복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비·복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표조사가 생략된 채 성벽의 정비·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실령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비·복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문지나 치성, 여장, 해자 등과 같은 부대시설의 복원에는 발굴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런 부대시설을 발굴조사 한번 없이 복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연히 추후로 이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 잘못된 복원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정비·복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도 절차를 거쳐 청사전을 마련하고, 일정에 맞추어 정비·복원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제2절 개발·활용방안

문화재 정책의 핵심은 파괴되고 유실된 문화재를 정비·복원하여 오늘날의 우리 삶과 연계시킴으로써 활용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활용에는 체험도 있을 수 있고, 교육의 방일 수도 있으며, 관광자원화의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지역에서 성곽문화재를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해미읍성이 유일하다. 즉, 매년 하절기에 해미읍성내에서 민속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개발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주의 공산성에서는 하절기의 주말을 이용하여 서문지에서 수문병 교대식을 진행함으로써 공산성을 찾은 관광객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성곽문화재의 복원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용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성곽문화재에 대한 복원과 활용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5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성곽문화재 중에서 각 지역별로 정비·복원 및 활용화를 추진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유적지를 점검해 볼까 한다.

## 1. 개발 방안

### 1) 개발대상 성곽의 선정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현재 충남 도내에는 모두 295개소의 성곽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두를 정비·복원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없다. 다만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든가 지역민에게 널리 알려진 유적, 지역민 누구나가 쉽게 찾는 유적 중 일부를 우선 정비·복원 대상 유적으로 선정하여 복원하고, 아울러 그와 관련된 활용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약 300개소에 이르는 성곽 중에서 어떻게 개발대상 유적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성곽 문화재가 갖는 역사성이다. 어느 곳에 있는 성곽이 되었든 역사적 현장이라면 당연히 정비·개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상징성이다. 비록 역사적 현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유적이라면 당연히 정비·개발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가치 및 활용가능성이 높은 유적지도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아야 한다면 역사성이나 상징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치더라도 정비·개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기준을 정해 놓고 지역별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성곽문화재를 찾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역사적 상징성

개발과 활용을 위한 대상으로 성곽문화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도내에 분포하는 성곽 중에서 이러한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 유적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 - 삼국, 고려, 조선시대 등

- 공주·부여 : 백제시대 성곽으로서의 성흥산성, 울산성
- 홍성·예산 : 백제시대 부흥운동의 거점지 임존성  
근대 의병의 본거지 홍주읍성  
(특히 홍주읍성은 주류성이라고도 함)
- 서산·태안 : 백제시대 산성인 부성산성·조선성곽인 해미읍성
- 청양 : 백제 주류성으로 비정되는 칠갑산성  
백제 부흥군의 중심 거점성으로 비정되는 鷄鳳山城  
통일신라시대에 축성한 牛山城
- 연기 : 백제 고사비성으로 비정되는 운주산성  
백제 주류성으로 비정되는 당산성  
고려시대 홍건적을 물리친 원수산성
- 천안 :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접전지였던 蛇山城
- 논산 : 계백장군의 전투지 황산벌과 3영  
의자왕이 놀았다는 황화산성  
백제 5방성중 동방성으로 비정되는 梅花山城
- 금산 :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을 이루었다고 믿어지는 백령성
- 아산 : 백제시대 湯井城으로 비정되는 읍내동산성  
고려시대에 평택주민까지 피난해 왔다는 영인산성
- 서천 : 백제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확인된 남산성  
서해안으로 통해 왕래하던 漕運船을 보호하던 마량진성
- 보령 : 조선시대 충청도 水營이 자리하고 있는 鰲川의 水營城  
조선시대 읍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포·보령읍성
- 당진 : 조선시대 읍성인 면천읍성

○ 문헌자료 및 지역의 전설과 연계된 상징성을 보유한 성곽

- 예산 임존성 : 부흥운동,
- 공주 무성산성 : 홍길동전설
- 아산 영인산성 : 대몽항쟁 등
- 연기 원수산성 : 홍건적 침입시 장수가 머물던 곳
- 천안 위례성 : 백제 초기 도읍지
- 논산 황화산성 : 의자왕이 출행나와 놀던 곳  
매화산성 : 왕궁이 있었던 곳

## ○ 지역의 진산

- 태안 백화산성 : 성대혜현
- 아산 신창의 학성산성 : 굴직현
- 금산 진산의 진산성 : 진동현
- 연기 당산성 : 금지현
- 보령의 진당산성 : 사포현
- 서천 남산성 : 설림군

## (2) 관리 및 개발 가능성

### ○ 성곽의 종류 구분

- 위치 - 산성, 읍성
- 축조재료 - 토성, 석성

### ○ 보존관리현황

- 정비복원 가능여부
- 문화재지정 및 추후 관리상의 효율성
- 주변 연계자원활용 가능
- 주변에 연계할 만한 관광자원이 있는지 여부
- 체육공원 - 등산, 산책 등으로의 활용 여부

### ○ 입지조건

- 이용하는 대상 시군의 중심에서의 접근성 - 접근거리, 경사도, 규모,
- 시군내의 주변 유적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루트상에서의 입지조건
- 주변 시군과의 연계성

### ○ 지역민의 개발 의식

- 대상 성곽에 대한 전문가 및 시군관계자의 개발의식
- 대상성곽에 지역주민의 개발의식 - 주변지역과 변경지역

### ○ 개발의 주체

- 여러 시군에 연계되어 충남도 차원의 개발이 타당
- 시군 자체의 직접적인 개발이 타당
- 읍면에 제한된 소규모의 지역 현안으로 개발 타당

○ 성곽관련 이벤트 사업 구상

- 민속축제
- 등 산
- 체육행사

○ 이용대상

- 일정 지역민 한정
- 일정 지역민 및 주변
- 지역 및 외부 관광자원

2) 성곽 평가 기준

충남도내에 분포하는 성곽의 정비·복원 및 활용은 기본적으로 각 시·군에서 담당한다. 따라서 유적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각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요소를 각 시·군이 담당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역사성은 굳이 시·군에서 선정할 것이 아니라 도단위에서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칫 역사성까지 각 시·군에서 담당할 경우 과장이나 왜곡 등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제시한 여러 기준과 그에 대한 항목별 기준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성곽에 대한 평가기준(예시)

번호	내용	평가 단위	A	B	C	D
1	역사성					
2	보존실태					
3	관리효율성					
4	정비·복원					
5	대외 인지도					
6	지역 관심도					
7	교통접근성					
8	주변환경					
9	관광연계					

A : 10점    B : 8점    C : 6점    D : 4점

### 3) 개발방향 수립

#### (1)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된 성곽문화재의 개발방향 수립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선정된 유적을 대상으로 개발 방향을 수립하여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유적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성곽은 많지만 유적 하나하나에 대한 축성시기나 목적, 과정, 그 이후의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일단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구줄르 파악한 다음 축성법과 수습유물을 종합하여 편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조사가 끝났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어떤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곽의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몇 단계에 거쳐 정비·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추어 성벽 및 부대시설에 대한 수리·보수 및 정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 때에는 성곽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성벽 및 문지, 건물지 등이 복원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성곽의 역사적 성격이나, 관련 전설, 혹은 지역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사실들에 의해 특별히 부각시킬 요소가 있겠지만 성곽 복원의 핵심은 역시 성벽과 성문, 건물지가 될 것이다.

성벽의 정비·복원이 마무리되면 활용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 - 산책로 개설 및 체육시설 조성 등이 뒤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정비·복원된 문화제는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자체만으로는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발길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

산림정비도 마찬가지로다. 성벽의 복원에 그치지 말고 성벽 주변의 잡목을 제거하여 성내에서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視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산성과 같이 역사성이 있는 경우, 북쪽에서 사신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고사가 있는 쌍수정에서 만큼은 적어도 성벽

북쪽을 바라볼 수 있는 視界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 (2) 단계별 개발 계획

성곽문화재는 다른 문화재와 달리 규모가 커서 한번에 조사와 정비·복원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정비·복원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군별로 특정 산성을 선정하여 개발할 경우에도 2~3개의 성곽을 모두 한꺼번에 정비·복원할 수는 없는 만큼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 1단계로는 기존에 개발 중이거나 또는 착수 및 착수예정인 성곽을 우선적으로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곽에 대한 개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상당한 인지도가 있거나 주변의 다른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찾는 발길을 유도할 수 있다.

예컨대 태안 안흥진성의 경우, 최근들어 신진도와 안흥항이 개발되면서 찾는 발길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항구를 끼고 있는 안흥진성의 개발은 시급을 요한다고 하겠다.

태안마애삼존불과 함께 있는 백화산성도 마찬가지다. 태안마애삼존불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매년 찾는 발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접한 백화산성에 대한 정비·복원은 자연스럽게 마애불을 찾는 발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의 임존성도 마찬가지다. 예당저수지를 끼고 있는 임존성은 예당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유적지다. 더구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었던 만큼 많은 이의 발길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접근로가 불편한 것이 최대의 단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편의만 제공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 임천의 성흥산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한 매년 해맞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건물지 등 성내 시설물에 대한 정비·복원만 뒤따른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이렇게 착수중인 성곽이 아닌 경우에는 2단계로 개발 필요성 및 활용 가능한 성곽을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들어 논산 황산성은 아직 이렇다할 지표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황산성

일대는 이른바 황산벌전투의 현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성벽의 정비·복원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인접한 개태사와 전견훤왕릉의 존재는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논산시내 가까이에 있는 황화산성 역시 마찬가지다. 이곳은 특히 의자왕이 야외놀이를 즐겼다는 전설이 깃들여져 있는 만큼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복원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누구나 쉽게 찾는 유적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장점들이 없는 곳이라 할 지라도 3단계로 추후 개발 가능한 성곽들도 있다. 논산 노성산성은 역사적 현장은 아니지만 논산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점과 봉수대의 연결루트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적과 차별되는 특징을 갖는 곳이다.

예산 산성리산성 역시 역사적 현장은 아니지만 나지막한 구릉에 자리한 보기 드문 산성이다. 산성이라고는 하지만 평지성에 가까운 산성인 셈이다. 그런점에서 산성에 접근하기가 매우 유리하고, 성내에 많은 건물지가 포함되어 있어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조선시대의 읍성은 이러한 나지막한 구릉성 산성이 더 평지 가까이 내려와서 출현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추후 개발 가능한 성곽의 후보지로 꼽고 싶다.

## 2. 활용 방안

충남 도내에 분포하는 성곽은 크게 보아 도성과 읍성, 산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곽들은 각각의 성격이 다른 만큼 정비·복원의 방법이나 활용화 방안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일단 다른 지역의 성곽 활용 현황을 참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충남지역에 있는 도성으로는 공산성과 부소산성을 들 수 있다. 비슷한 성격의 성곽으로는 경주 월성, 대구 달성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가 그 자체 역사적 현장이란 점에서 아직 뚜렷한 개발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성곽들은 각각 백제와 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

심지였던 만큼 조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주 월성이 월성 자체의 구조보다는 월성을 포함한 경주 시가지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조사의 주안점이 두어져 있는데 비해 부소산성의 경우에는 축성법 및 그 남쪽에 있었다는 왕궁지의 위치를 찾는 데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백제 사비시대 왕궁지의 흔적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왕궁지가 찾아진다면 왕궁지 자체의 구조 뿐만 아니라 왕궁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었을 사비도성의 구조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활용방안 또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도성과 달리 읍성의 경우에는 낙안읍성과 고창읍성이 잘 활용되고 있다. 수원의 화성 역시 읍성은 아니지만 읍성과 비슷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이들의 활용 방법을 검토해 보면 수원 화성은 그 자체 방어시설이자 예술작품인 만큼 특별히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유적 자체가 좋은 참고자료 노릇을 하고 있다. 성곽과 관련된 각종 부대시설이 모두 모여 있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술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화성은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활용방안이 된다.

낙안읍성은 읍성 중 보기 드물게 읍성 본래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읍성의 복원은 성벽만을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성벽과 몇몇 관아를 복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삶의 무대라는 느낌보다는 소품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낙안읍성은 원래의 모습을 재현해 놓음으로써 생활의 場이자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 있는 문화제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다.

산성중에는 상당산성, 계족산성, 이성산성 등이 정비·복원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들이다. 모두가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산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비·복원에 그치고 있는 느낌이다.

## 1). 읍성, 산성의 개발 및 활용 사례 검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읍성과 산성의 정비·복원 및 활용화 사례를 검토해 보자.

먼저, 고창 모양성의 경우 민가를 완전 철거시킨 후 관아시설을 정비해 놓았다. 성벽에 대한 복원, 성내 건물지 복원(관아건물 복원) 등이 대표적인 정비·복원의 사례다. 아울러 관리는 국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성격의 서산 해미읍성의 경우, 민가를 완전 철거시키고도 그 안에 이렇다할 별다른 정비·복원을 시도하지 않았다. 성벽은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지만 성내에 들어서면 황량한 느낌이다. 성내 어디에서도 생활의場임을 느끼기 어렵다.

남포읍성 역시 관아터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민가와 학교가 뒤섞여 있어 읍성 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성벽을 복원하기는 하였지만 성벽 복원만으로 읍성의 재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낙안읍성의 예가 참고된다.

낙안읍성은 민가 일부 철거 후 관아시설 일부를 정비하고, 원래 마을을 보존하였다. 따라서 완벽하게 조선시대 읍성을 재현하고 있다. 당연히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방안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 있는 수 많은 다른 읍성과 차별화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읍성의 재현은 단순히 성벽의 복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재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2) 산성의 개발 활용

산성은 읍성보다 더 많은 수가 분포한다. 따라서 읍성보다도 더 다양한 활용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특히 읍성 주변에는 성내외에 많은 민가가 거주하는 것에 비해 산성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비·복원은 물론이고 활용하는 방법에도 한결 더 여유가 있다.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산성이기 때문이다.

개개 산성의 역사성이나 입지조건, 주변 유적과의 관련성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역사문화자원으로의 활용

역사성이 짙은 유적은 학술조사 및 정비·복원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부여 나성, 부여 청산성, 부여 청마산성, 아산 탕정성, 부여 성흥산성, 예산 임존성 등이다. 이러한 유적지들은 史書에 등장하는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역사적 현장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가장 큰 활용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정비·복원 자체가 가장 큰 활용방안인 만큼 정비·복원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러한 유적지 중에는 최소한의 기초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정비·복원된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정비·복원은 결국 헐어내고 다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현장(사적지)에 대한 정비·복원에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역사성과 상징성, 양호한 보존상태 등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성곽도 있다. 이러한 성곽들은 또한 입지가 평지에 가까워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해미읍성, 보령 오천성, 논산 황화산성, 서천 건지산성, 아산 탕정성 등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성곽들은 성곽과 관련된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그와 관련된 축제나 기타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해미읍성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축제가 대표적인 예다.

한 마디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성곽이라고는 하지만 각각의 성격이나 입지, 담고 있는 역사적 의의가 다른 만큼 차별화된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 성곽의 기능과 의미도 쉽게 전달하고 다양한 활용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속촌 건립이라든가 수군의 출동상황 재현, 기타 각종 경연 대회는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라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휴식공간으로의 활용

역사성이나 보존상태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지만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성곽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곽 역시 입지가 나지 막하여 지역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아산 신창학성, 임천 성흥산성, 연기 운주산성, 연기 당산성, 금산 진산성, 태안 백화산성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성곽들은 휴식공간인 만큼 전망대 설치라든가, 식수원개발, 등산로에 체육시설 설치 등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 (4) 산교육장으로의 활용

역사적 현장이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다른 유적과 연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비·복원을 통해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논산 황화산성·매화산성, 아산 영인산성, 예산 임존성, 홍성 백월산성, 보령 남포읍성, 보령읍성, 서천 남산성, 금산 백령산성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곳은 모두가 중요한 역사적 현장으로 비정되는 만큼 성벽에 대한 정비·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투의 현장인 경우에는 전투와 관련된 시설물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역사적 현장을 찾아온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안내판과 성내 시설물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덧붙이는 작업도 필요하다.

여기에 문화재 해설사를 배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장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히 길으로 드러나는 성곽의 특징이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성곽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를 배치하여 성곽과 관련된 요소요소를 설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제 4 장 맺음말 - 결론 및 정책제언

성곽은 주거지, 고분, 요지, 사찰 등과 더불어 역사시대를 연구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중의 하나다. 특히 성곽은 유사시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성곽이 조국애와 민족애를 일깨울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성곽문화재를 정비·복원하는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여기저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히 ‘붐’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문화재 단순히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조상들의 슬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동력이 될 때 문화재의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의 정비·복원은 그 자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 실태를 보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것과 달리 문화재의 복원은 원형의 유지가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성곽의 정비·복원 역시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문화재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비·복원 사람의 문화재에 대한 안목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를 정비·복원하는 담당자들은 ‘기술’만 보유하고 있을 뿐 원형을 구별해 낼 만한 ‘안목’이 없다.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이 원형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비·복원이 또 다른 새로운 문화의 창조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훼손 문화재의 재생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성벽을 헐어버리고 새로 축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남아 있는 성벽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형을 참고 하여 재현해 놓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있는

성벽마저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벽을 축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문화재의 파괴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성곽 문화재의 바람직한 정비·복원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우선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1절 보수 정비사업을 위한 제언

### 1. 단기적인 대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벽의 정비·복원 작업은 ‘원형을 재현’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성벽을 ‘창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을 추진하는 관계,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 그리고 실제로 정비·복원을 담당하는 사업주 간에 유기적인 의사전달 체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실제로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보니 자연히 괴리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와 같은 성곽 복원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성벽의 정비·복원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곽에 대한 기초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초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성벽을 복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성벽의 복원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전문가는 해당 성곽을 직접 조사한 조사자이자 시대별, 기능별 성곽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전문가가 막상 성벽의 정비·복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성벽의 복원이 ‘원형의 재현’이 아닌 새로운 ‘축조’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성벽이 복원된 성벽을 보면 제대로 복원된 경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성벽의 정비·복원에 해당 전문가를 반드시 참

여시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단기적인 방법의 하나라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벽의 정비·복원 후에 지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성벽의 정비·복원 후 별다른 결과보고 없이 간단한 修理報告書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책임있는 정비·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비·복원에 따르는 잘잘못이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비·복원을 마친 후에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비·복원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지도위원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제시해 본다. 지도위원회를 통해 정비·복원된 내용의 잘잘못이 가려진다면 조금씩이나마 원형에 가까운 복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修理報告書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성곽문화재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비·복원은 추진하는 관계와 사업 담당자간에 은밀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 또한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성벽의 복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 자연히 정비·복원을 담당한 사람들도 책임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복원의 배경, 과정,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修理報告書를 제작하여 관련 학계에 배포하고, 그를 통해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修理報告書를 통해 잘못된 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비·복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2. 장기적인 대책

성곽문화재의 정확한 정비·복원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는 정비·복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문화재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현행 문화재 수리의 자격조건은 대단히 간단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재 정비·복원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 수리업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전문 수리업자들은 필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문화재보존과학과 출신 인재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문제를 들고 싶다. 현행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은 관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성곽문화재의 정비·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사, 복원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관계, 담당자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도내에 있는 어떤 성곽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성곽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곽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석재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정비·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비·복원과 관련된 이 삼자가 항상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장치(시스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전문위원회의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재 복원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교육적인 효과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비단 전문가나 학생이 아닌 일반 시민일지라도 문화재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얻게되는 교육적인 효과가 가장 일차적인 목적이자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성곽문화재의 복원은 단순히 성벽의 복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성곽을 포함한 주변의 환경조성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읍성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지역이었고, 또한 평소에 일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場이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읍성들은 성벽의 일부 구간을 복원하는데 정비·복원의 목표를 두고 있다.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성내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버려 오히려 황량한 느낌마저 준다. 이러한 환경이 읍성 본래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성곽 주변에 높은 현대식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

다. 성곽은 방어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평지에 자리한 읍성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읍성보다 더 높은 건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현재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성곽 주변에 높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성곽 본래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다.

산성 역시 마찬가지다. 산성은 당연히 성내에서 주변지역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성벽 주변으로는 시야를 가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벽 주변에 많은 잡목들이 우거져 있어 성내에서 성 밖을 관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원래의 산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성곽의 복원은 단순히 성벽의 복원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주변환경에 대한 복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2절 활용을 위한 제언

성곽문화재의 활용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성곽내에 봉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봉화를 올려 연락을 취해보는 작업도 민족 동질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시도해 볼만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새해 첫날 같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올린 봉화가 어느 한 장소에서 만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충남지역에는 약 300개소의 대소 성곽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정비·복원할 수도 없지만, 이들 모두를 활용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해당지역마다 대표적인 성곽을 2~3개 선정하여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몇몇 성곽을 개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발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성곽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성곽이 갖는 역사성이나 보존실태, 지역민들의 관심도, 인지도, 그리고 주변 문화유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상유적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예컨대, 예산에 있는 임존성은 백제 부흥운동시 중요한 거점성이었던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논산에 있는 황화산성은 의자왕이 놀던 곳이라는 전설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곽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태안 백화산성은 태안마애삼존불과 가까이에 있으면서 삼존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연기 운주산성 역시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지역민들은 믿고 있다. 부여의 성흥산성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산성이면서 백제시대 加林城으로 알려져 있다. 논산의 황산성은 황산벌전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찍부터 있어 왔다.

이렇게 각 지역에 남아 있는 성곽 중에서 역사성이나 인지도, 주변 유적과의 관련성 등이 특히 큰 성곽을 대상으로 하여 정비·복원을 진행하고 활용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활용화 방안으로는 정비·복원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유적,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유적,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적,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적 등이다. 예컨대 공산성이나 부소산성은 정비·복원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이런 성곽은 특히 원형의 재현에 충실하도록 정비·복원할 필요가 있다. 해미읍성과 같은 경우는 관련 축제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성곽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좀 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접한 서산마애삼존불이나 태안마애삼존불, 보원사지, 그리고 서산 어리굴젓가 같은 먹거리의 존재는 관광자원으로써의 해미읍성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곽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성흥산성, 아산 학성산성, 연기 운주산성과 같은 경우가 될 것이다. 주민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곽은 예산 임존성처럼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현장이라면 정비·복원을 통해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곽문화재는 성격에 맞추어 다양한 활용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성곽과 관련된 행사 및 이벤트를 통해 성곽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부 록

### ◆참 고 문 헌

## - 참고 문헌 -

### 단행본

- 公州大學校 博物館, 『燕岐 雲住山城』, 1998.
- 國立公州博物館, 『水村里土城(1)』, 2001.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고고학사전』, 2001, pp.579~582.
- 國立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Ⅱ)』, 1996.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 整備에 따른 緊急發掘調査』, 1999.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Ⅳ)』, 2000.
-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扶蘇山城發掘中間報告書(Ⅲ)』, 1999.
- 金英心, 「忠南地域의 百濟 城郭 研究」, 『百濟研究』 30, 忠南大 百濟研究所, p.83
- 단국대학교 박물관, 『망이산성발굴보고서(1)』, 1996.
- 文化財研究所·翰林大博物館, 『楊州大母山城發掘調査報告書』, 1990.
- 朴淳發 外, 『百濟泗泚羅城(Ⅲ)』,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2.
- 朴淳發 外, 『泗泚都城』,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3.
- 상명대박물관, 『충주대림산성』, 1989.
- 祥明大學校 博物館, 『洪城 石城山城 建物址 發掘調査報告書』, 1998.
- 成周鐸·車勇杰, 『保寧 保寧里 百濟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 成周鐸·車勇杰, 『稷山 蛇山城』,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4.
- 孫永植, 『韓國 城郭의 研究』, 文化財管理局, 1987, p.77
- 沈正輔, 『韓國 邑城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5, p.62
- 安承周, 『公山城』,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82.
- 安承周·徐程錫, 『聖興山城 門址發掘調査報告書』, 忠南發展研究院, 1996.
- 安承周·李南奭, 『公山城 建物址』,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2.
- 安承周·李南奭, 『公山城城址發掘調査報告書』,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0.
- 安承周·李南奭, 『公山城推定王宮址發掘調査報告書』, 公州大學校 博物館, 1987.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지』 8집, 2002.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학예지』 제8집, 2001.
- 尹武炳, 『木川土城發掘調査報告書』, 忠南大學校 博物館, 1984.
- 尹武炳, 『扶餘 官北里 百濟遺蹟 發掘報告(Ⅰ)』, 忠南大學校 博物館, 1986.

- 尹武炳, 『扶餘 官北里 百濟遺蹟 發掘報告(Ⅱ)』, 忠南大學校 博物館, 1999.
- 李康承 外, 『神衿城』, 忠南大學校 博物館, 1996.
- 李南奭·徐程錫, 『魯城山城』,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5
- 李南奭·徐程錫, 『安興鎮城』,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5.
- 李南奭·徐程錫, 『雲住山城』,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6.
- 李南奭·李 勳, 『公山城池塘發掘調查報告書』,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5.
- 李南奭·李勳, 『보령 명천동 백제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5.
- 이춘근, 『우리나라 성곽의 보존관리정책』, 한국성곽연구회, 2003
- 李海濬 外, 『所斤鎮城』, 公州大學校 博物館, 1996.
- 李弘鐘 外, 『蓮芝里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2002.
- 任孝宰 外, 『天安 慰禮山城』,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7.
- 趙源昌, 『乾芝山城發掘調查報告書』, 2001.
- 崔孟植 外, 『扶蘇山城 發掘調查 中間報告』,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5.
- 忠南大 百濟研究所, 『黃山 別戰蹟地』, 2001.
- 충남발전연구원, 『백령 성시굴조사개략보고서』, 2003.
- 忠南發展研究院, 『燕岐 雲住山城 城壁 發掘調查略報告書』, 2002.
- 忠南發展研究院, 『白華山城』, 2002.
- 忠南發展研究院, 『牙山 鶴城山城』, 1999.
- 忠南發展研究院, 『燕岐 雲住山城 試掘調查報告書』, 2000.
- 忠南發展研究院, 『禮山 任存城』, 2001.
- 忠南發展研究院, 『泰安邑城』, 2003.
- 忠淸南道, 『文化遺蹟總覽』(城郭·官衙 篇), 1991.
- 충청남도, 『문화재수리보고서』, 2000.
- 忠淸埋葬文化財研究院, 『南山城發掘調查概略報告書』, 2002.
- 忠淸埋葬文化財研究院, 『乾芝山城』, 1999.
- 上野市教育委員會, 『史跡上野城跡石垣保存修理工事報告書』, 1998.

## 일반논문

- 권오영, 「방어취락의 발전과 토성의 출현」, 『강좌 한국고대사』 7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pp.61~101.

- 徐程錫, 「百濟 5方城 位置에 대한 試考」, 『湖西考古學』 3輯, 2000.
- 서정석, 「대전·충남지역 관방연구의 현단계」, 『학예지』 8집,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2001, p.58.
- 成周鐸, 「百濟 新村縣 位置比定에 대한 研究」, 『百濟論叢』 1輯,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pp.87~117.
- 沈正輔, 「百濟 復興軍의 主要 據點에 關한 研究」, 『百濟研究』 14, 忠南大百濟研究所, 1983, p.165.
- 俞元載, 「百濟 湯井城 研究」, 『百濟論叢』 3,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2.
- 俞元載, 「保寧 鎮唐山城에 대한 研究」, 『公州教大論集』 21, 1985.
- 尹武炳, 「扶蘇山城 城壁調査」, 『韓國考古學報』 13, 1982.
- 尹武炳·成周鐸, 「百濟山城의 新類型」, 『百濟研究』 8, 忠南大百濟研究所, 1997, pp.12~13.
- 尹龍嫻, 「高麗 대몽항쟁기 지방민의 避亂 立保 사례」, 『百濟文化』 22,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2, pp.169~182.
- 李南奭, 「瑞山 富城山城에 대한 考察」, 『古文化』 60, 1989.
- 李南奭, 「天安 白石洞土城의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28, 1998, pp.75~93.
- 崔孟植, 「百濟 版築工法에 關한 研究」,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1996, p.545